

# 생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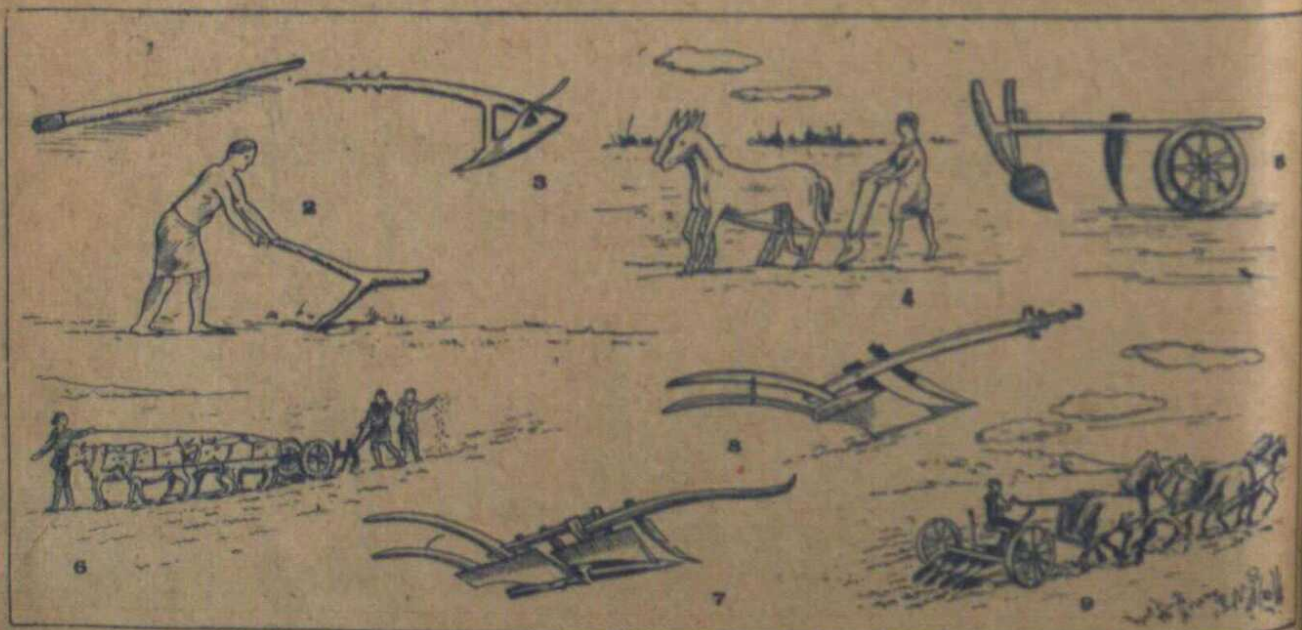
★ 58호 ★



# 길 조 심

尹 石 重 譜  
尹 克 榮 曲

생생생생 생생생생 생생생생 생생생 길-가다 다칠라 한-눈팔지 말어라  
 한 눈쟁이 사고쟁이 사고쟁이 말쟁이 따르듯 따르듯  
 뿡뿡 - 뿡 뿡 - 강 불 켜졌다 가리말 - 고깃거  
 라 와-랑불 켜졌다 팔리팔리-가거라 노 왕 불 - - 켜졌다  
 돌아돌아 가거 - 라 길-가다 다칠라 한-눈팔지 말어라 한 눈  
 쟁이 사고쟁이 사고쟁이 말쟁이 따르듯따르듯 뿡뿡 - 뿡



## 쟁기의 내력

- ① 옛날 띠매기 쟁기. ② 그후 쟁기의 손잡이를 만들고, ③ 시리아에선 두 사람이 불붙고 쓰게 되는 쫘 발달된 쟁기를 만들었다.
- ④ 에집트에선 말이 쟁기를 끌고, ⑤ 로마에선, 그것을 개량시켜



마귀를 달았다 ⑥ 별채 두 배 필의 말이 끄는 사기손의 쟁기.  
 ⑦ 서기 1650년 경의 이중(二重)

쟁기 ⑧ 18세기 처음 오만다 사 람이 연구하여 만든 훌륭한 쟁기 고, ⑨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저 구 개량되어서 1819년 부머는 그 형과 같은 복식(複式) 쟁기까지 생겼다. 처음엔 말이 끌었으나 요즘엔 증기, 작소림 등을 끌 수 있다.

# 소학생

1948년 6월 1일 발행

58호 ★ 6월치

## 차례

소설·봄의 노래...정인택(4)  
 소설·소년 김숙자...박태환(28)  
 풍요·봄...이태선(31)  
 시·정일과 들꽃...김 본(16)

○소년 박학자...홍이경(12)  
 ○재미 이야기...이성표(17)  
 ○농장가는 어떻게...방물식(22)  
 ○할말 지었나?  
 ○모구 이야기...최병환(34)  
 ○명장술기르는작물... (16)  
 ○농물원 구경...주요섭(35)

★새 학교...윤석중·국구영(2)  
 ★우리 딸 보모 찾기... (11)  
 ★직접자라반부엌...이현숙(14)  
 ★조선공부(37) ★새 소식... (26)  
 ★나의 양부...김철규(38)  
 ★피와 학교 모자...윤석중(39)

직자직자...정기희대희... (2)  
 그림해거...서동지...김용환(20)  
 그림속담(25) ★이슬보따리(15)  
 만화·과학공부...김복이(37)  
 화보·야기꽃... (44)  
 무엇이 제일 깨끗하? (10)

### ★우리 학교 작품★

서문 회화 학교지... (38)  
 팔팔박자... (30) ★회회박자(40)  
 이진삼집삼(34) ★포마삼식(37)  
 으락삼... (40) ★장난감... (41)  
 의견포기... (41) ★갈꽃기... (41)  
 소락명구파부... (42)  
 만물고 나서... (42)

### ★그림 그리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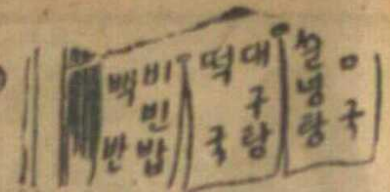
정 현웅·김 용환·김 기장  
 김 의환·조 병덕·최 수경



정 현웅·그림

소설  
소설

# 봄의 노래



정 인 택 · 그 림 · 김 의 려



그 건담였  
는데……

그러면 말 때와는  
저렴도 안만나게 될게  
구, 그러는 동안에 차차로  
사이가 멀어질게구……

동호는 학교 문을 나서서 동무  
들과 헤어져서, 문득 그것을 생  
각하고,

“말, 친구들이 한탄만치로 멀어  
더러 날 것이지, 요제는 철라도 있  
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온갖 말로 증명하려고 나서 마  
악 큰 길로 나서려면 동호는, 주  
중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눈  
앞에 친구들이 정갈해진 옷을  
들고서 버리고서 있는 것이다.

“너 방학했지?”

정갈 전 손으로 얼굴을 스마들  
는 형 때의 모양을, 동호는 일  
마 동안 말 없이 바깥 불꽃, 제  
답을 못했다.

“아이 우워.”

말 때는 가늘게 몸을 떨더니,  
동호를 길 옆으로 잡아 붙여서,  
“야, 딱딱 한 그릇 사마우.”  
라고는 끝까지 음식편을 먹으  
고 가리키면서 정갈게 발걸음을  
맞는 것이다.

“이지척아. 벌써 몇 때야?”

두심도 갖지를 않고 나서, 아차  
하고 동호는 큰 실수나 된 듯이  
속으로 혀를 갈갈 차는 것이다,  
이미 때는 늦었다.

갑나는 일이 있어라요, 인제부  
더는 딱 잡아 짤아, 따시는 말을  
붙여 볼 힘으로 내지 못하게 라  
리라고……그렇게 결심했던 것이  
어느 물에 빠져서 안 것이다. 주  
선부인 말때함을 휘아가는 따시  
한 때가 되고 말지 모르나도, 속  
으로는 그렇게 취우치면서도,

“아직 오정 멀었어.”

또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이런  
말이 일 따위 되어 나오는 것을,  
인제는 동호는 동호 자신으로서  
모 어찌 할 길이 없다.

말 때는 서양 사람 모양으로  
이상야릇한 몸짓을 때로이며,

“오정 붙어야면 적은 붙어야  
겠? 말하 다 볼라.”

그러고는 혀를 두 대 떨어,

“딱딱 있었지?”

“없어.”

두 손아 붙이고 누워 동호는  
완득 인제가 걸음서 가려고 나  
는 말 때의 양쪽도 그 때의 한 속 우워

## (4)

백이던 비가 오락가락하며 여  
러 날을 두고 구름거리던 날씨  
도, 겨우 물기는 한 모양이나, 그  
때신 선일 살을 예닐푰한 추위가  
계속되었다.

침 하고 머리 위에서 전신 잘  
울리는 물이 계속 저울나워, 동호  
는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  
으나,

“……울지 어떻게 반 추워라, 그  
때야 얼른 한 강이 얼지. ……  
발을 동동 굴르면서도 스게이  
르 지킬 생각만 간절하다.

오늘부터 겨우 방학이었다.

방학하면 아버지가 시골 때의

내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네  
 .....그때로 그게 형 때의 책  
 중에 저지른 것. 오날 여기서 박  
 성형 책을 만난 것도 무슨 인연  
 일 것이다. 이 책은 이 부질없는  
 것은 전부 형 때를 위하여 쓰는 것  
 이었고, 그때야만 형 때로 모른  
 다. 그러하, 그래서 이것으로 형 때  
 의 관계의 마음을 감으리라!  
홍 호는 짧은 사이라 일은 그럴  
 지 생각되고 어떻게 되리라 할  
 지 몰라 손근히 걱정거리였던 본  
 을, 그러하 이 자리에서 형 때  
 세게 주어 버리라 결심한 것이  
 다.

"이놈아, 잘 있어 있건, 그러지  
 말구 이자식이..."

홍 호는 아파하는 반대로 형 때  
 의 말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대, 책도 말구 책도 읽어  
 보라오. 너 허먹구 싶은거 사  
 봐서 오너라."

그렇게 형 때가 선선하게 말라  
 구, 선뜻 앞발을 쳤다.

책도 오겨를 거머쥐면서 형 때  
 는 변히 무슨 귀경 얘기며, 열두  
 얘기를 제론자 신이. 나서 떠돌이  
 떠이는 것이었으나, 홍 호는 귀  
 세 감으려드오 안하구, 오랫동안  
 구웠던지 생각하더니, 이윽고 모

게를 끌어 집현한 때모로,

"형 때야....."

그 거리의 형 때는 열두에서,  
 이른 말이 꽃송의 저기름이 오모  
 는 일갈을 쳐볼모 의아스러운 눈  
 소리로 건너다 본다.

"형 때야.....너 책 이자식이,  
 암나 나 찾아 다니니?"

"찾아 다니? 누가 찾아 다니  
 구?"

"자아식이, 그럼 암나 찾아 다니  
 어? 길으로도 찾아 오구 오날은  
 모 길목에서 지키구 있구..."

"이자식이 미쳤나, 지키건 누  
 가 지키구 있었어? 우연히 만났  
 지!"

형 때는 눈을 부라렸다.

홍 호는 람람 동안 혼자 모는  
형 때의 눈을 마주 쳐다 보며...  
 성 내구 그만이다. 걸 날을 아  
 니 이자식이!.....

책국이 앞에 와 놓일 때까지  
 속으로 몇 번이든지 그것을 쳐볼  
 이라고 있었다.

마 먹고 나서도 그들은 어색한  
 왼쪽 속에서 잠시 동안 서로의  
 실승만을 헤아리고 있다가, 그것  
 이 가깝하다는듯이 홍 호가 먼  
 저 입을 열었다.

"너 인젠 정말 우리 집에 오지

에 발표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일  
 이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가 발  
 표하겠으며, 풀린 문제를 보  
 면 문제제는 상을 드리겠습  
 니다.

(학교 학년 이름을 잊지  
 말고 적을 것)

소학생 편집부 과학계

★홍 호명한 소년 소설★  
**프란더어스의 개**

조종연 번역·김 용준 그림  
 여러 분도 잘 아시는, 어떤  
 예술가 벨로의 프르라슈의  
 눈물겨운 이야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독자를 가진 소  
 설이 이제야 여러 분 앞에  
 그 전부가 번역되어 나왔습  
 니다. 더우기 김 용준 선생  
 의 묘상한 그림은 귀환전물  
 이 될 것입니다.  
 지금 파는중·책값 160원  
**성문사 발행**

말어."

"왜?"

"난 너더구 놀기 싫어."

"뭐?"

"너더구 놀기 싫단 할야."

"애저게, 누가 언제 벨더머 이  
 자식이 놀아 팔렸어? 전방진 자  
 식 같으니라구..."

"그러니까 이자식이, 우리 집  
 이우 오지 말구, 길에서무 기마  
 미지 말만 할야."

"글세 이자식이, 배려것절 거  
 마미진 누가 기다려."

"우리 어머니가 너더구 노는거  
 아시면....."

"너 이자식이, 책 이머니? 인  
 제 마야 살았니?"

홍 호는 답할 함고 벌떡 일어  
 나서 두벅두벅 밖으로 앞서 나갔  
 다.

"형 때야!"

이윽고 형 때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홍 호는 억척로 다정  
 스러운 목소리로 부르며.

"형 때야, 너 오세 놀구 있지  
 구?"

"전 너가 알아 쥬터, 이자식이  
 !"

아직도 형 때는 분이 다 가지

**과학 질문 모집**

어려분의 질문을 모집합니  
 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밖에 어디서든지 어려분  
 의 생활에서 알기 어려운 과  
 학 문제를, 엽서나 엽서만한  
 종이에 적어 보내시면, 그  
 문제를 과학 방면의 전문가  
 인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서  
 분명진 대답을 받아 "소라필"

의 많은 모양이다.”

“이놈아 설배가 팔려, 거머새  
주...너 누구 있겨 팔구 아학대  
파우 다쳐라!”

“아니꼬운 자식 다 팔네. 바짜  
셋게 귀나... 너가 우럭 아버지나  
더니?”

“누구 없으집...”

“술집 배가 왜 돌아. 양계 미자  
식아 배 권부 설수 팔려니 짜; 그  
배 너 같은 집 팔려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딱 가래침을 털고 들  
아서리는 형 태를, 중 호는 종종  
걸음으로 따라 가며, 얼른 주머니  
에 손을 넣어 남은 돈 건부를  
꺼집어 냈다.

“형 태야, 너 어디 가니?”

“알아 별해.”

“너 돈 없지?”

그 말에 형 태는 귀가 뚱뚱 피  
이든지 발을 멈추고 모계를 모며  
졌다. 그러나 발은 없었다.

“이지.....”

형 태는 무뚱뚱하게

가졌던 돈을  
형 태 손에 쥐  
어 주고는,  
뒤도 알

들어 모으 제 관절을 걸었다.”

결에 돌아 와서도, 결에 돌아  
오는 길에서도, 중 호는 어찌못  
한 일상의 서운함을 느꼈다.

형 태와는 물론 헤어져야 했  
다. 오래 사귄 동무가 이남 것  
을, 중 호는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것이다.

중 호는 정적이 서늘거늘까지  
틀 못했다. 그래서 동체도 동무  
가 생기지를 알았다. 그렇다고  
남유한데 할말되거나 매정스러운  
것도 아니었으나, 이윽을 적부어  
질 안해져 안학군수도만 자만 한  
인제, 색교성(社交性)이 아주 없  
다고 해도 가했다. 그래서 속으  
로는 할 여러 동무들과 친하게 사  
귀고 싶으면서도, 자기가 지경  
하여 그 길을 모르는 못하는 것  
이다.

형 태 친하게만 하면, 그 동무  
대제는 잘 관찰하게 되었다. 그  
러나 거기 어찌까지가 문적인  
것이다. 괴롭게 자라 팔기 베풀  
며, 직면히 소극적어로 내향적(內  
向的)인 그의 성격이 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정적이 있는 반면에, 나이  
모다는 철철 힘이 있어 보이며,  
지각 있는 어른의 북망일만큼 비  
지적진해도 있었다.

결에 돌아 보 보니, 어머니가  
손저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술집구어?”

“아이 주어, 귀가 식혀 온 노비  
.....”

중 호는 일부러 술집부터 찾  
구도 안했고 모로 속으로 거  
들어 가며, 걸음으로 가만히 어  
니의 동경을 즐긴다.

밖에 있을 때 잊어 버릴 수도  
있었으나, 집 안에 팔안 들어  
놓으면 동을 가슴을 적미는  
불안감.....그 일대, 상

복 장복서 온 길에  
년 열이 들어가  
적나 많았  
나... 짜



서, 잠식도 없이 숨이지 않는 그  
 불타는 얼굴에, 동 오는 얼음이  
 들어 오면 무슨 부모의 안색부터  
 숨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빠의  
 동 오의 불타는 숨결의 하나였  
 다.

어머니의 기색은 어쩌나 모을  
 이나 따름이 없다. 그것을 알으며  
 그 겨우 속으로 무릎 꿇고 숨을  
 숨기는 동 오였다.

어머니가 발상을 차리며 부엌  
 으로 나가면 사이에, 동 오는 뒤  
 처 일어나 안쪽을 돌돌 덮고 쓰  
 신 옷으로 갈아 입으며, ..... 지  
 나, 오늘부터 정면 세 줄았이다.  
 인제는 정말.....

지거로 아직 못한 무슨 세모운  
 일이 오늘부터 활짝 띄어는 것  
 같아, 동 오는 오 며칠 동안 갖  
 볼 수 없었던 손길의 가벼움을  
 느끼는 것이다.

(5)

정말 비록이었다.  
 무슨 바쁜 일이 제신지, 한이나  
 모니라 어머니로 아버지로 한겨  
 졌다.

남편의 마당 한 가운데까지, 봄  
 날 같이 따스한 햇살이 비칠 것  
 은 복나, 눈앞은 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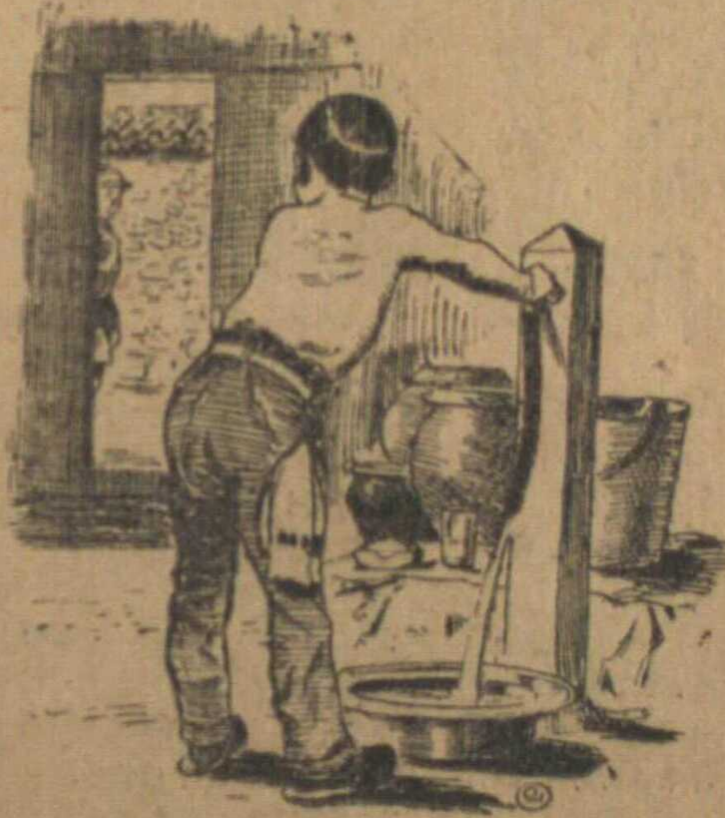
마당으로 내려 와 계수를 타며  
 그 수포를 붙어 놓고, 무심코 문  
 짚은 아래본 동 오는 밤처럼 놀랐  
 다.

눈의 작은 사람의 그림자가 문  
 밖의 일선했던 것이다.

..... 또 저 죽일 몸이.....  
 같은 서 울 안에 살면서 한만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구나 한 편에서 이렇게 만족 좋  
 게 살아 오는거야 어쩌할 모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현실적이 동 오가 다시  
 한 번 문간문을 바라 보았을 때,  
 동 오의 눈은 모뎀이 무서운 눈  
 짜 마주치고 말았다. 열매의 성  
 산뜻이 노려 보는 눈이다.

열 매는 때론 귀머라 한쪽 몸을  
 숨겨도 얼굴만은 가웃하고 내뿜  
 고 있다. 그러나 사살에 있어,  
 열 매의 눈은 실 나지도, 노여워  
 하지도 않았었다. 아나, 오리며



열 매의 눈은, 비굴한 웃음을 웃  
 고 있었다. 그래도 동 오에게는  
 잠깐 동안 그 눈이 무섭기만 했  
 다.

아무리 무서워도 이미 눈이 마  
 주친 어상 귀할 결이 없었다.  
 동 오는 얼굴에 피눈에도 물을  
 찍어 바른 후에,  
 "가만 있어."

눈젖을 화로 방으로 들어 가서  
 의자를 열고 나왔다.

..... 열매의 또 왔을까, 어떻게  
 해서 찾아 보내나, 아무도 없으  
 니 들어 오렐까, 내가 나가 볼  
 까.....

그러나 일은 좋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녀는 사이레 동 오의  
 발걸은 이미 때론 밖으로 향하였  
 었다.

"어머 가우?"

부엌에서 아침 상을 모던 잣난

이가 묻는  
 다.

"가게 어릴  
 가, 상 피서  
 방에 잣다  
 뒤!"

저르시오도 맘  
 짝 놀라리만  
 큼 매정스름  
 게 학을 쓰  
 고 나서, 동  
 오는 일부러  
 찢찢히 문  
 밖으로 나갔  
 다.

스레기통 옆  
 에 숨어 섰  
 던 열 매는,  
 동오의 얼굴

을 바라 보며 의미 없는 웃음을  
 웃는다.

그것을 못본채 하고 동 오는  
 전신을 가늘게 떨며, 그러나 날카  
 롭게 소리 질렀다.

"다신 오지 말됐는데 ..... 너  
 왜 또 왔니?"

열 매는 비굴하게 한 걸음 들  
 며서며,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자  
 아식은 정말 네."

그러면, 울퉁 울퉁 자라지  
고,

“정말야 잠깐만 와.”

누우런 속니를 내 보이며 또  
형 태는 비글하게 웃었다.

동 호는 잠깐 망서렸다.

뺨구를 말고 보르 집으로 불  
어 가 버릴까. 그러나 그것쯤으  
로 불려 갈 형 태는 아니다. 자  
라리 무슨 말인지를 물어 보고,  
어떻게든지 해서 다시 못오게 하  
는 최후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  
다.

그렇게 결심하고 동 호는 말없  
이 형 태의 뒤를 따랐다.

“동 호야.”

형 태는 잠깐 주위를 돌아 보더  
니 낮은 목소리로 은근하게 부르  
고 나서,

“내 인제 너의 집이 다칠 안을  
게……마지막으로……나 돈 5백  
원만 만들어 다우, 응?”

건과 팔라 그 목소리에는 대원  
하는 빛이 떠 붙었다.

그것이 지어서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근경에 빠졌는지,  
동 호로서는 헤아릴 수 없었으  
나, 그것은 하여간 의외의 일이  
였다.

“뭐?”

하고 동 호는 부지중 뇌 굴고  
나서,

“5백 원?”

하고 소리를 높였다.

“응.”

형 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깐  
망서리는 듯 하더니,

“꼭 5백 원 쓸 일이 있어 그  
래. 정말야, 거짓말이면 사람 아  
나…”

“……그래두……내가 쉼 돈이

5백 원씩이나 있니?”

형 태는 울퉁 울퉁한 눈으로,  
“이자식이, 너의 집은 부지 아  
빠?”

소리를 높였다가 이어서는 안  
피겠다고 고쳐 생각했는지,

“응, 동 호야, 재발 사람을 살  
려 다우.”

이런말 목소리가 처량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동 호로서는 도저히 올  
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돼! 이런말 정말 안돼……”

그렇게 딱 잡아 끌어 말하고  
말았다.

형 태는 그런 대답을 머리 세기  
했었다는 뜻이 추근추근하게,

“이자식이 그러지 말구 재발  
을 살려 다우……인제 정말 다시  
는 안달라게……아나 집에서 만나  
두 인사두 안달라게……정말 5백  
원만 만들어 다우……그짜것거  
물때 좀더 내면 되지 않니?”

“뭐? 흥취 내?”

동 호는 적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언젠가도 형 태의 말을 못이겨  
양복장 선함을 취해 내었다. 다  
시는 안하리라고 맹서 하였으나,  
부모를 속이고 돈을 훔쳤다는 죄  
는 그때로 남아 있다. 그것만으  
로도 지금 동 호는 부모를 볼적  
마다 가슴이 아왔다. 그 일이 다  
행이 판로되지 않았으니까 망정  
이지, 그렇지 못했던들……다시  
그런 죄악 속으로 유혹하려는 형  
태에게 동 호는 말할 수 없는 분  
노를 느낀 것이다.

“흥취 내? 이자식이. 날더러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 너 때문  
에 도둑놈이 되란 말야? 망할자

식 장으니라구……”

동 호는 형 태에게 팔을 수닐  
는 충고를 느끼어, 금방 때려가려  
도 할 뜻이 없으므로 바빠 다가  
다.

형 태는 서슴이 서러워 동 호의  
얼굴을 한참 담없이 바라다 보더  
니, 아주 색이 없는 팔을 저당지  
별한간 때모를 끄쳐서,

“이자식이, 안되면 안됐지, 제  
것때를 울리구 집집에서 막을 스  
는지나. 쓸쓸한 자식이……”

그러고는 우라우라한 눈으로  
정말 동 호를 노려 보았다.

“……”

동 호는 겁이 났다. 뺨구를 쫓  
던 팔이 피고 말 것이다.

“……이대로 헤어지고, 인제 선  
다 다시 안오겠지……”

동 호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없  
이 때분쪽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리  
었다.

“어디 가, 이자식이, 재발하  
구 가!”

형 태는 딱 앞을 가로 막아서  
더니, 동 호의 목덜미를 잡았다.

“안주면 안됐지 너 이자식이  
취취해 유렸니?”

번개 같이 찬 손이 올라 가되  
니 동 호의 뺨을 핏세 했다.

분한 생각이 전신을 떨게 했  
다. 그러나 동 호는 석우려 하지  
는 안했다. 자식이 불행이 지나  
되는 형 태를 이길 수도 없었지  
만, 수취할 필요로 느끼지 않  
았던 것이다.

동 호는 즉 밤도 의문의 담  
이 형 태 있을 때까지 나오려 했  
다.

“취 전망지게 모루눈이 어찌  
지적구, 이자식이……”



없는 자식이 되지 않게 무슨 새  
수동한 소리가, 의지적아……

“적자……있어?”

동호는 꼭 돌아 왔다.

“일찍이나? 뭐보면.”

정 때는 소의 목지 내의 낯  
웃고,

“그럼 너한테서 어찌 어찌 있  
는 줄 알았니? 이런 뜻한 자식  
살고너하구. 이놈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잖  
아니? 널 이자식이 일어다 기본  
자식아, 제구일필이라는지 아니  
이자식아, 그게 너야 이 바로 정  
제야……소승, 오제 정말 일찍  
가……”

동호는 좌학 말의 끝어 정 때  
의 벽함을 참았다.

“누가 그러던? 이자식아 말하  
달 안할테나?”

정 때는 잠깐 벽함을 부리서  
그도 알았다.

“이런 정하네 뜻한 자식, 누가  
그때?”

너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낳서, 너  
웃어다 기본 할 누가 모른다던,  
널 일어다 기본 자식아, 그러니  
꼭 이놈이 너 일같이 그렇게  
못생겼지, 네 팔은져 어떤 자  
제 자학연제 누가 할거나 된다던  
!”

“아나 이자식아, 듣기 싫어.  
어떤 놈이 그러디?”

“내가 그랬다. 어떤테나?”

“이놈의 자식, 아가리를 열어  
놓는다……”

“애저저……”

동호는 벽호 같이 말의 끝어  
말투를 걸었으나 정 때는 끝작도  
안했다.

정권을 물리 세 동호가 다시



한 번 벽하의 할 때, 정 때의 죽은  
수적이 동호의 의 말을 부러  
갔다. 동호는 그 자리에 주라  
고 으꾸러졌다.

으꾸러졌던 동호는 다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눈이 시달릴지  
중될 되었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픈 생각은 없고 오직  
분할 따름이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  
중히 여기는 자기 부모까지 모두  
할 자식! 동호는 그때도 중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지 해서 그  
불손된 자를 할복 시키고, 아까  
말은 거짓말이라는 그 힘 마다  
말을 들어야 했다.

말없이 일어선 동호는, 온 몸  
이 불덩이가 된듯 맹렬한 거목로  
정 때에게 달려 들었다.

그러나 동호는, 정 때의 일적  
으로 보 간단히 땅 위에 걸었다.  
숨이 가졌다. 모래와 아무의 맛

아도 아프지는 않았다. 동호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하여 정 때의  
가슴에 벽어 말했다.

동호의 힘으로는 모저리 정 때  
를 말대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백만은 그렇지 않았다. 백 번이  
면 백 번, 천 번이면 천 번, 다시  
일어나서 동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지 않고 죽을 결심이었  
다.

동호의 주먹은 한 번도 정 때  
를 때려보진 못했으나, 으꾸꾸  
모양으로 땅에 굴렀던 발바닥 인어  
나 말라 붙고 말라 붙은 하는,  
불같이 동호의 부지는 차차로  
정 때를 압도할 수가 있었다.

정 때 우세인 정 때였으나, 살  
기가 등등한 동호의 무흔(圓痕)  
을 당하면 모리는 없었다. 일어  
실 때마다 벽의 위기는 하연하  
도, 정 때는 어느덧 어지못할 공  
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배너고 뛰고 뛰고, 나가  
보내졌단 다시 눈이 시뻛게서 별  
표 휘척 일어나 일 없이 덩벼드  
는 동호의 모양은, 무슨 악귀나  
찰(惡鬼羅刹)과도 같이 형 태 의  
눈에는 두렵게 비치는 것이다.

골장애 가선 무슨 큰 변이 나  
코야 말 것 같았다.

김을 먹기 시작한 형 태에게는  
이미 공세를 취할 기력이 없었

다. 그 때나 동호의 입 가도 시  
뻛건, 피가 주르르 흘렀다. 형  
태의 거칠 주먹에 입술이 더건  
것이다.

동호는 손등으로 그 피를 씻  
고,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형 태  
의 바지를 잡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형 태는 더  
씩을 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악!”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큰 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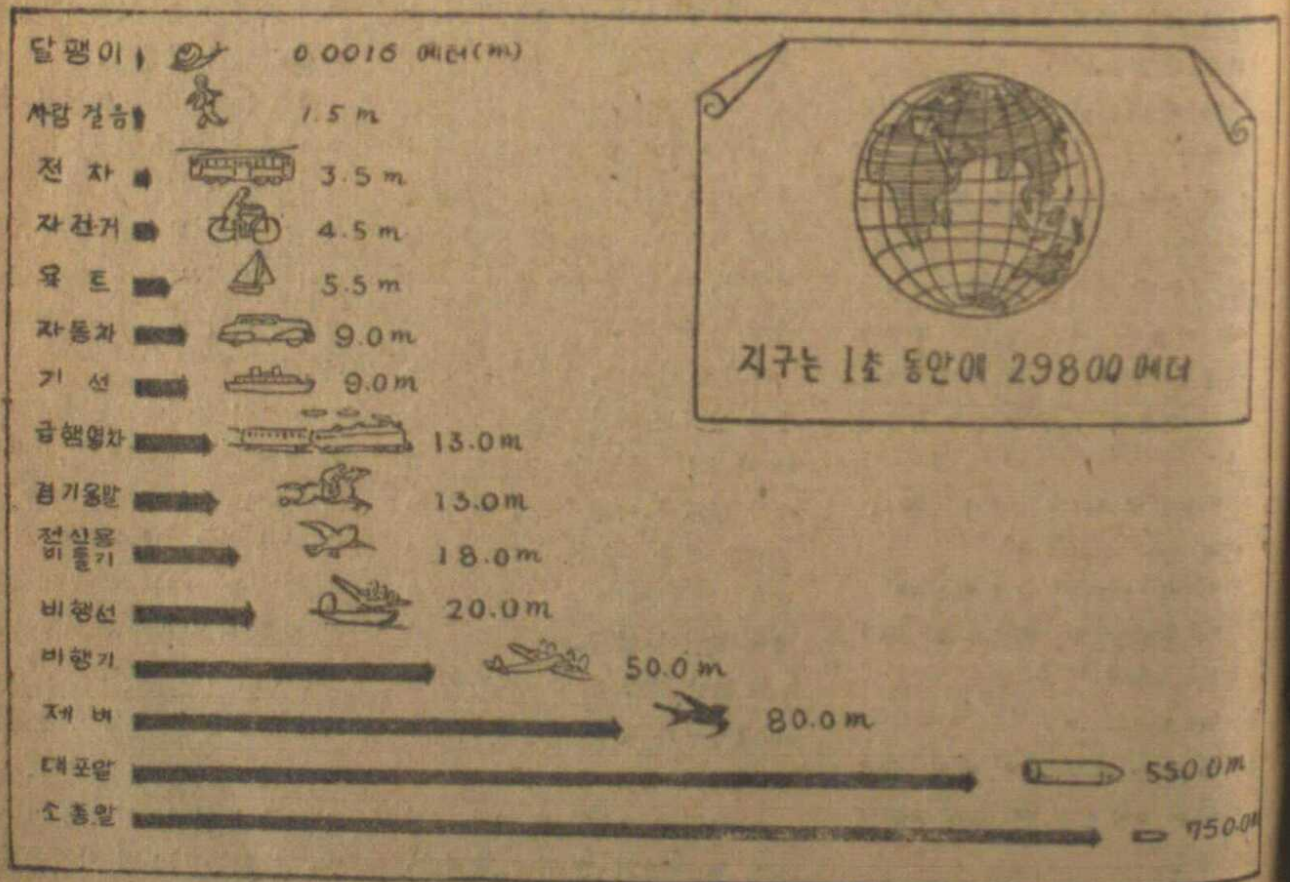
합하여 다름전 치기 시작하였다.  
클록 어구를 끌어 치면서,  
형 태는 골깃 뒤를 끌어 보았다.  
거부성이의 동호가 두 주먹을 손  
근 쥐고 어전히 바라 왔다.

형 태의 전신에 소름이 북치  
다. 형 태는 다시는 뛰고 돌아  
보지 못하고 결승이 날 날려라  
... 울고 뛰었다.

—(계속)—

## 무엇이 제일 빠른가?

(1초 동안에 달리는 거리)



(4)



クツ(貫)ハ...실물은, 실수인주.  
 シツバイ(失敗)ス...남겨하다, 남  
 지르다.  
 シナヅレ(品切)ス...떨어질, 다 나  
 감. (떨어지다, 다 나가다.)  
 シバキ(芝罘)...현주, 불이.  
 シマフシヨ(始末書)...편찬서.  
 シメキリ(締切)...①아주 다름.  
 ②바람, 줄 막음.  
 シマク(辭)ニナツル...분하다, 아  
 니겠다, 화나다.  
 シマフ...속죄함, 사쓰.  
 シロイロ(種々)...여러 가지, 갖  
 가지.  
 シユフチヨウ(出張)...과출, 과전.  
 シユフチヨウイン(員)...과출원.  
 (과원)  
 シユ(主)トシテ...주장으로.  
 シウハイイン(集配員)...저원원,  
 주원사람.  
 シユンバン(顯番)...차액.  
 ショウジョ(少女)...아가씨.  
 ショクズ(上手)デアル...현수, 숙  
 수함. (숙달하다, 익숙하다.)  
 ショクゴン(冗談)...저담, 농담.  
 ショウネン(少年)...소년.  
 ショウユ(醬油)...간장, 지액.  
 シレタモノ...떠수롭지 않은 것,  
 어떤 없는 것, 시원한 것.  
 シロウド(素人)...초매, 평문이,  
 날무지, 못배기.  
 シンセフ(親切)デアル...다정하  
 다, 정답다, 다정스럽다.  
 스키(行星)...살별, 꼬미별.  
 스키(壽司)...초밥.  
 스폰프리...별밤.  
 스키...소매저기.

スリガラス...보알 유리.  
 세이킵(清潔)デアル...깨끗함,  
 깨끗하다.  
 세이타쿠(整潔)デアル...조사, 조  
 사스럽다, 과음, 사치하다.  
 세프카ク(折角)...일편, 모처럼.  
 세히(是非)...①뜻, 불가분. ②시  
 미.  
 세ツ(世語)...①아마지, 헛바라  
 지. ②추실. ③살은.  
 센クワイ(全快)スル...기차하  
 다, 원치하다.  
 센サイ...편정속.  
 센センテキ(全勝的)...은 나라  
 지, 전국지.  
 센(程)ヌキ...하계풀이.  
 센メツ(全滅)...몰살, 몰사.  
 ソウチ(装置)...차림, 차려놓기.  
 ソバ(そば)...국수.  
 ソマフ(粗末)ナリ...편편지않다.  
 시서하다.  
 ソモソモ(抑仰)...머저, 머저, 또  
 머저.  
 ソロバン(算盤)...수판, 수판.  
 타이다이(大概)...거의, 지반.  
 타クシ(卓子)...탁자, 책상, 책  
 분.  
 타シ(鐵)ガニ...화살이.  
 타タミ(畳)...돗장마.  
 트리カミ...수저, 젓는 종이.  
 트리バユ...쓰파기주.  
 푸イデニ...경매. (이경매, 그경  
 매)  
 ツゴウ(都合)...형편.

ツド(都度)...때마다, 그때그때.  
 ツマナナイ...떠수롭지 않다, 편편  
 지 않다, 신산하다.  
 ツメエリ(詰纏)...어민 양복, 두  
 달이 양복, 목달이.  
 ツメキリ(爪切)...손톱깎기, 손  
 톱칼.  
 타이エン(庭園)...동산, 정원,  
 뜰.  
 타이カ(定價)...값지키, 명값.  
 태그(手紙)...편지.  
 데ダチ(出口)...남쪽, 나리, 나  
 이구.  
 데ヌラメ...함부르, 귀동리동.  
 라フダヒ(手塚)...거들기, 쓰디.  
 테ブクロ(手袋)...장갑.  
 테マネ(手筈似)...손짓.  
 데ムカヘ...마중, 마지.  
 텐キ(天氣)...날씨, 인기, 천  
 기.  
 텐ジヨウ...천정, 반자.  
 텐ネントク(天然痘)...마비.  
 란브라...뒤집.  
 도쿠데(道具)...현경, 현구.  
 토크안칸(當分間)...아직,  
 얼마간, 얼마 동안.  
 토모카ク...어엿든, 하여튼, 꼭우  
 간.  
 트리ウチボウシ(烏打帽子)...캡,  
 사냥모자.  
 나부テ(名宛)...발송이, 받은 사  
 람.  
 나카ナカ...①메우, 씨. ②음치럼,  
 헛사리. ③모미어, 문돈.  
 나카マ(仲間)...동무, 합권.  
 나부테イナイ...피지않다.  
 나마이キ(生意氣)...거드림, 전  
 방지다.  
 나마カシ(生菓子)...두른과자.

# 소년 과학사

조선 중심으로 한 과학사 이야기

홍이섭



(제 1 호)

## 1 과학사(科學史)란 무엇인가?

학생 여러 분이 역사(歷史) 공부를 하여, 역사란 무엇인지를 알았겠지만, 특히 과학사라고 해서 얘기를 들은 일이 없기 쉬운 것이다. 과학사라는 것은, 즉 과학을 중심으로 한 역사다. 여기서서는 특히 우리 조선을 중심으로 한 과학사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과학은 서양에서 발달(發達)된 것이니, 우리 나라 과학사란 무엇인가 할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오늘 발달된 과학은 서양 과학

이지만,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 때로 옛날부터 이제까지 조선 사람으로의 과학 공부를 했고 과학을 알았던 것이다. 이런데에서 조선 사람이 가졌던 과학이, 역사에서 볼 때 어떻게 변천(變遷)하고 발달되어 왔는가를 알아 볼 수 있다.

또 조선 과학사를 알아 보는데 결해서,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이, 서양 과학과 비교할 때,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볼 때,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다.

## 2 과학의 시초=불(火)의 발명

오늘 우리들이 일상 무심하게 사용하는, 불(火)을 다시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명(文明)에 이르는 시초는, 불의 발명에서다.

사람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곧 과학의 시초다. 아메리카(America)의 학자 루이스.몰겐(Luis Morgan)은, 사람이 짐승(動物)들과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불을 사용한 자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의 사용이 사람에게 문명을 이루게 만들었을까? 우리 인류(人類-사람)가 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주 동물과 같은 생활(生活)을 했었던 것이다. 첫째 불을 사용함으로써, 추위를 면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점점 널리 퍼져 살게 되었다. 둘째 불을 쓰게 되자, 먹는 것(음식물-食物)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제반 먹게 되었다. 또 제반 지면 허수한 숲 속에서 잠만 자던 사람들이 불을 키고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동물보다 더 활동하고, 노동(勞動-일)할 수 있게, 삼과 불로 마음먹고 불이

나오는 짐승과 달리, 문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짐승( 짐승)인 불을 어떻게 알아서 쓰기 시작했고, 또 그 불을 어떻게 보관(保管)했으며, 어떻게 불을 만들어 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의 연구(研究)를 통해서 보일 마음과 같다.

사람들은 처음 화산(火山)에서 튀는 불덩어리나, 또는 벼락(落雷)이 떨어질 때 불 구멍을 하여, 또 그 불을 무시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까닭은 불꽃을 가져가서 쓰니 마땅한 맛이 무었을지 모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산 그 불꽃에 나무 꼬뜨러져 불덩이를 모아와, 불을 꺼지지 않게 불이게 시작했고, 그 불의 불 자끼끼로 이 사는 길 속, 또는

수 같은 때로 날라다가, 계속되서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거나 계속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사냥꾼은 불을 제 손으로 만들어 내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 번의 실험 끝에, 불 초라 같은 것으로 나무 가지나 보목을 잡아서, 자기의 소용되는 물건을 만드는 불판이, 나무와 불이 한쌍 부딪치면 점점 뜨거워지고, 더 심하면 끝인 나무 부스러기에 불이 달기는 수로 없지 않았다. 이것을 본 원시인(原始人—우리가 흔히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나 나무가 서로 마찰(摩擦)—끼이고, 문지르는 것(或은지불이 서로 부딪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방 원시인들의 문장(文)을 보면, 문

명(名)은 사회(社會)로서 산(山)과 산(山)을 합쳐서 산(山)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때로 부딪어 가지를 붙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시인들이 같이 부딪힌 것은 막대(木)를 문지르면, 불이 일어난다. (제 1도) 둘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무판(木)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불이 나오도록 막대(木)를 파고, 두 손(手)으로 비벼 붙이면, 불이 일어난다. (제 2도) 또 같은 것을 세째 그림에서 보듯이, 막대(木)에 끈을 감아서 문지르면 된다. (제 3도) 이러한 방법은, 서쪽(西)의 유럽(Europ)과 남(南)의 사모아(Samoa) 제이론(Ceylon) (제 4도)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발화기(發火器)를 아메리카 인(人)의 이로기(Iroquois)란 종족(種族)들이 쓰는 것에서 보면, (제 5도) 먼저 널판(板)을 놓고, 줄(繩)을 감고, 줄(繩) 끝(末)에 막대(木)를 세우고 (나), 막대(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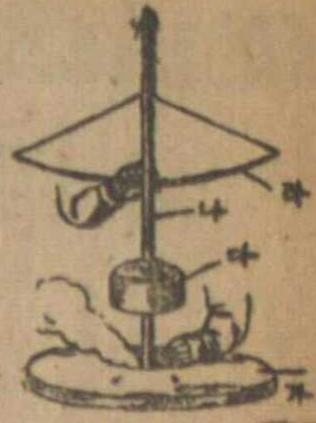


(제 3 도)

세마 돌(石)을 꺼고 (나), 막대(木)를 깎아서 활판(活板)을 감아서, 활판(活板)을 잡아 내리고 땅(地)에 문지르는 동안에, 막대(木)가 불(火)이 나며 불(火)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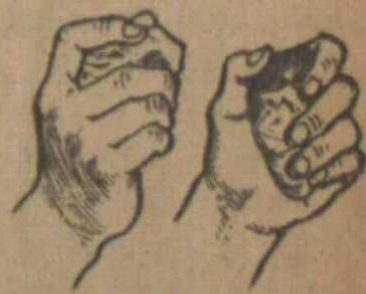
사람들의 지혜가 말(말)에 따라서, 이어 불(火)과 활판(活板)을 서로 맞부딪쳐서 불(火)을 내게 했다. (제 5도) 이것은 조선(朝鮮)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문명(文明)의 여러 나라(國)에서, 지금 쓰는 상(上)냥이 발명(發明)된 때(時)까지 써 온 것이다.

먼저 여(여)기(處)에 나무(木)를 문지르(文)서 불(火)을 일으키는 법(法)은, 조선(朝鮮)에서도 옛날(古)부터 사용(使用)된 바(바)이다. 아직(今) 확실(確)하다고 하(하)기는 어렵(難)다. 그러나 대(大)개(概) 결(結)상(上)남(南)도(道)의 김해(金海)에 있는 조(趙)씨(氏) 무지(無知) (貝塚=계(界)동(洞))에서 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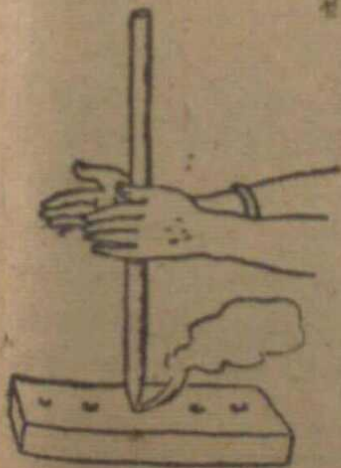
(제 4 도)

여(여)기(處)에서 발견(發見)된 것(物)이 여섯(六)등(等)의 직(直)경(徑)이요, 활판(活板)의 직(直)경(徑)과 문(文)판(板)의 직(直)경(徑)이 같은 때(時)에, 그 활(活)판(板)이 불(火)에 그(그)를 문(文)지(지)는 자(字)가 있는 것(物)이므로, 아마(恐) 이(이)것이 나무(木)판(板)에 마(摩)찰(擦)을 일으(興)키(起)려고 문(文)지(지)는 막대(木)가(가)기(器)인(인) 것(物)인(인) 것(物)이다. (제 6도) 여기서 우(우)리(我)들(等)의 상상(想像)은, 마(摩)



(제 5 도)

인류(人類) 같이 생활(生活)의 첫(初) 단계(階段)에서 그림(圖)에 불(火)을 일으(興)키(起)었고, 깎(削)아 문(文)지(지)는 활판(活板)의 끝(末)을 부딪(부)쳐서 불(火)을 일으(興)키(起)었으며, 그 부(부)딪(부)침(침)을 으(으)러(러) 써(써) 왔(왔)고, 문(文)명(明)의 시작(始)은 아직(今)까지



(제 2 도)

•부식것•부식들을 가 의 길을 찾게 되었다.  
지고 있게 되었다. × × ×

옛날 서양의 확대경(擴大鏡)은 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류 문화의 출발점(出發點)이고, 이것이 곧 사람들이 갖게 된 과학의 시초라고 하겠다.

사람들이 불을 제 마 음때도 만들게 된 뒤로는, 인류 자신의 생산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추위를 막고, 맹수(猛獸)도 막아 낼 수 있게 되어, 생명을 보존하는 데도 권해졌다. 또 어두운 속에서 무서워하던 마음도 불 빛이 관해전에 차츰 없어졌다. 여기서 자연(自然)을 차츰 똑 바로 보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혜가 더욱 발달했고, 이어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게도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쇠(鐵)를 녹여서 도구를 만들게 됨에, 새로운 문명

우리들이 일상 공부하는 역사에서 볼 때, 사람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 일류 문화의 출발점(出發點)이고, 이것이 곧 사람들이 갖게 된 과학의 시초라고 하겠다. 또 불의 사용과 함께, 사람들은 도구(道具)를 만들었다. 이 도구의 제작(製作)은, 인류 문명을 건설(建設)하는 첫 걸음이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그 이용에서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도구 제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 하겠다.

(계속)

(홍 이철 선생님은 국학대학 교수이신데, 바르실 중에도 여러 분을 위하여 이 글을 다달이 계속하여 써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편집국-)

일학 준비에 틀리기 쉬운 말

이 영 활 치음

책값 80원 · 지방 송로 10원 "아" 발행



### 적십자사(赤十字會)란 무엇? 이 현 속

흰 바탕에 붉은 빛으로 십자를 그린 깃발을 여러 분들은 보신 일이 있으요? 그것은 적십자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적십자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수같은 적과 싸울 때는 전쟁에서도 적이고 동지를 가리지 않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보는 거룩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사는 언제 어떻게 생겨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서기 1863년)에, 스위스의 알레릭스와 이제비의 딸 피노라는 곳에서 죽었을 때, 수 많은 병사들이 보기에도 끔찍할만큼 무참하게 죽은 것을, 서서 나라의 지사(志士) 안리이클루나이라는 사람이 보고, 이따리 인은 사람으로서는 모처럼 그대로 볼 수도 없고, 내미리 할 수도 없다고 것이 생각한 나머지, 이 위대한 정경을 자기의 적어 책으로 만들어, "이러한 때의 부상(傷兵)만 병사는, 적이거나 동지거나 간에 아무 차별 없이 간호하고 치료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온 세계를 향하여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각국의 왕성과 원조를 받게 되어 지금의 적십자사는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적십자사의 표는 서서 나라에 경의(敬儀)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서 국기와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빛만 반대로 한 것입니다. (서서 국기는 붉은 바탕에 흰 십자) 그러므로 이 적십자사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1864년에는 서서 유네스코에서 각국 정부의 대표가 모여서 공회(會)를 만들고 활발하게 일을 시작하 것입니다.



## ★산 같이 큰 부 처님과 개미 같 이 작은 사람들★

더러 본! 사람이 세계를 채고  
있으므로 누어 있지 않습니다. 보  
십시오. 여기는 코도 없고 침이  
도 없고 팔도 다리도 손발도  
없는 벌과 같은 벌레입니다. 그  
대신 누어 있는 사람 중에 아  
주 작은 아치 장난감 같이 작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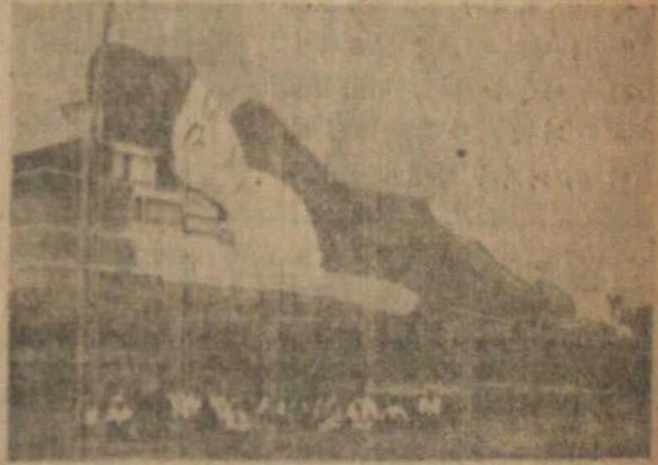
러나 사실은 이 작은 사람이 우  
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고, 드러  
누어 있는 것은 사람보다 훨  
씬 배나 더 큰 벌레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아주 먼 남쪽 나라,  
중국과 인도 사이에 비어마리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곳에  
피레그라는 도시가 있고, 그 곳  
에 이 만은 사람, 즉 세계에서 비  
일 큰 유명한 부처가 있는 것입  
니다. 이 부처님의 길이는 54.  
18 배어, 누어 있는 어깨의 높  
이는 15.5 배이라고 하니, 그 크기

가 얼마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부처님 몸은 색깔은 없이 황  
고색 거꺼라 한 색을 띠고 그  
뒤에다 금빛같은 빛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까지  
는 이 땅에 한 부처가 피레그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사람이 와서 불도  
를 알았을 때, 항해가 되는 작은 배  
를 타고 그 섬을 가 찍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아니고, 껍데기만  
불사람이 누어 있는 것으로 광복 후  
다 불교의 고을 모두 가지 없었

더니, 후에서 이  
섬이 훌륭한 부  
처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에 부처님을 믿  
는 선보(信徒)  
들이 만든 것이  
물일 없을 것입  
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인도에서 세상  
을 떠나실 때의 모양이라고 합니

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부처가 중  
산가지로 머리, 눈썹, 혹은 손발  
등, 복 원이 나아갈 자리에 나  
있는 것으로, 정말 머리털이나 눈썹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처  
님의 코의 길이는 4.18 배이고  
얼굴은 12.4 배어나 되니까, 어  
리털이 피어 있는 물의 길이도  
3배의 가람이나 될 것이라고 하  
니, 세계에는 참으로 이상한 부  
처님도 다 있군요. 이것은 사람과  
자연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예  
술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곳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높이  
는 18.16 배어나 되는의 서서 있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  
나 복을, 또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섬의 숲 비탈입니다.  
속 비탈을 뛰어서 거기다 부처님  
의 얼굴과 몸통이, 손, 다의 등  
을 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깨어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얼  
굴에는 줄이 두꺼져 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 줄은 아무런 나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과 마



# 장님과 등불 길 돈

“계스론 장님 한 사람이 등불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나리 북쪽에 걸린 끈을 따서 한 번 풀라매고 퍼뜩을 나서려는데 따라 나온 아내가,  
 “어보, 얼마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이 등불을 들고 가시죠.”  
 하고 등불추를 내어 주었습니다.

“등불! 장님이 등불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요?”  
 장님은 하하하 웃었습니다.  
 “글쎄 당신은 소용 없으시겠지. 어두운 길을 가시자면 으르 가는 사람들도 밟을 것이요, 거기다 당신이 실수하

실지 누가 아오, 그러니 이경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

하고 아내는 친절한 등불을 들고 가기를 권합니다. 장님이 아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야,  
 “그럼 가지고 갈까……그러나 무지하게 어둡게 가지고 가나……”

장님도 계스론 장님은 아내 말이 옳은 말 일면서도 걱정이 크자 무지하게 가지고 다니기를 싫어하는 그였으므로 또한 한 등불을 한가지로 길을 떠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시마와 무지우치면 언제든지 되리시요. 절제하는 그 딱히 소용 없는 등불이냐……”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친절한

## 보마 과학

### 병정을 기르는 식물

동물들이 보오색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위협한 때에 막는다는 것은 여러 동물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있으니, 다음에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럽고도 재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비가 오지 않는 지방에 주로 나무들의 잎과 가지들은, 모두 동물들에게 먹히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나는 아이스트라판트라든가 벨트워이드 같은 식물은 아무

악하지 그 손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마치 가정지킴이 같은 자갈과 모양도 빛도 비슷함으로 잘 재로 동물들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동물들의 보호색과 비슷한 것이지만, 아카시아의 종류로 우리가 보편적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혼자 살기가 매우 불안하여서 그외는 지 많은 재미를 자기 몸에 걸며, 같이 생활하며 자기의 몸을 보호시키고 있다 합니다. 식물 따위가 무슨 동물을 거르느냐 하고 여러 분은 웃으시겠지만, 그 재미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대신 그 식물은 재미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나무 병

치로 무 개의 커다란 가지가 있어, 재미는 그 속의 흰빛을 먹으므로 재미로다 잘을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잎사귀의 밑부분에 있는 흰색이 있어, 잎 끝의 구슬같은 결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먹으며 재미들은 완전히 이 나무를 취할의 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결방들은 여러 분이 잘 아시는 황백질(澱白質)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들은 이 나무를 조금도 먹이지 않고 바깥에서 다른 것들이 화해 복이나 잎사귀나 또는 관목들을 먹으며 하면, 재미들은 조금도 먹지 않습니다. (編成)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취할의 번갈의 복회 복을 들의 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 있고 이상한 식물이지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든 한 가지 있는 것이 이야기라 하였으나, 끝으로 한 가지 없는 것이 이야기라 하였나 하였나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악할을 일 하는 짐작(假略)제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수의 제미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이 제미는 이상하게도 정년 제미인데, 수천 년의 대군(大軍)으로 따지는 것도 양식 편을 하며, 이동(移動)하고 있는 무적의 제미입니다.

그러하여 그 제미가 정군(行軍)하는 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도 합니다. 제미 모양이건 편견, 때로는 소나 말이 되고 이 제미의 공적을 받고서는 제미는 모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미는 인가(人家)의 실내에도 침입합니다. 사람도 위험 당하여 죽고 말지만 그 제미 하나 따위 같은 것을 한 마리로 남겨 놓는 법 없이 완전히 먹어 버리고 말므로, 어느 지방에선 이것을 정결군이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미들은 또한 다른 종류의 제미를 정복한 뒤, 노복(奴隸)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제미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람이 발할 것도 없으므로 하나도 같은 병수도 추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제미가 기어 나오면

죽거나 쓰러지거나도 편견을 하여서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미 있고 무적한 존재입니까?

어떤 학자가 한 제미 집에 얼마간 수의 제미들이 편견 생활을 하나 조사한 결과, 실로 93,616 마리였다고 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목화사를 걸어 넣어서 전염을 시킨 뒤 수의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운수 좋게 밖에 나갔던 일만 마리는 화를 면하였으나, 그

비교 모니 한 집에 백만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제미의 한 왕국에는 골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왕이 있는 법이다, 골번과 같이 한 집에 한 마리로 정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무 마리의 어왕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싸움 없이 사이 좋게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하니, 사람으로서 제미의 본을 받는다는 것 보다 뜻 깊은 모험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끝 -

김메리 선생 지음

# 어린이 피아노 책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것을 위한 가장 세롭고 과학적인 교재입니다. 좋은 종이에 그림을 섞어서 아주 재미 있게 된 책입니다.

四六倍判 60頁・道林紙・울렛트印刷  
定價300圓・地方送料 15圓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피아노는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中略)어린이들이 무엇이나 볼 줄고 으레하면 곧 실증이 나기 쉽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어머니가 첫 일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中略)어머님 상에는 피아노를 칠 줄 모으시는 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의 지도를 따님이나 아르님과 같이 받으셔서 교수 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어떤 모형적이거나 기계적으로 가르치면 아니되며, 어린이의 음악적 소질을 최대한으로 하고 음악을 좋아하도록 재미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中略)이 책은 요즈음 미국에서 사용되는 몇 개의 책을 참고했는데, 거의 전부가 고음부 기호와 저음부 기호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던 "바이엘제"와는 아주 다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방법이 쉽고 신쾌합니다.







# 유성기는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동식

소리를 무슨 큰 속에도 담아 두는 방법이 없는 한, 웅변가의 연설이나 음악가의 연주를, 오랜 뒤사람들에게 불러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씨만으로는 또저러 쪽 그때로 전할 수가 없으니, 이 음파(소리)를 어떻게 기록을 해서, 시간과 장소가 틀리는 곳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 첫 명예는 에디슨에게

그런데 이 음파를 담아 두는 기계로는 유성기가 있는데, 이것은 에디슨이 자기가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서도 가장 자랑으로 삼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857년에 웨오·스콧이라는 미국 사람이 "워노오로그래프"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에디슨은 이것을 본받아 유성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콧가 만든 기계는, 겉으로 보기에만 에디슨의 유성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에 있어서는 지금 트로오키(발성영화)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면 스콧의 기계는 진동판(振動板)이 움직여서 철판(鐵片)을 흔들면 점멸이 될 듯한 줄이에 음파의 모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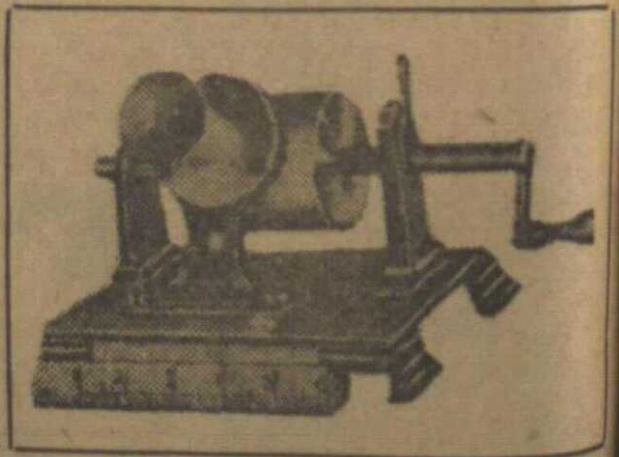
기록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읽든지 알 수 없으며, 또 특별한 장치를 하지 전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 각국에서도 유성기에 대해서 연구해온 학자들이 많았지만, 현재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공허히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콧으로부터 20년 후에 에디슨의 덕택으로 겨우 그 희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1877년 12월 24일 에디슨은 밤을 새워 쓴 서류를 미국 특허국(特許局)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78년에는 세계 최초의 유성기 발명가라는 영예가 그의 머리 위에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일은, 이렇게 큰 발명을 한 에디슨은, 전과 같이 몇 천번씩 실험을 해 가기도 죽음(壽音)하는 방법을 발명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문득 덕력에 떠오른 것입니다.

## 전신반복기

연구 중에 묘안(妙案)  
1877년 여름, 그는 전신반복기(電信反復器)라는 기계를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전신국(中央電信局)으로 각 지방에서 들어 오는 전선에 각각 보낼 때 한다가 나중엔 목적지인 수신국(受信局)으로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키(송신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에서 전신이 오면 신호전(信號電流)에 따라서 파란을 삼각로 움직이게 해서 줄이 걸려 가늘고 긴 줄이며 구멍을 꿰웁니다. 그렇게 하면 줄이 걸려 들은 구멍이나 줄을 두드리서, 전기가 걸렸다 이 어겼다 함으로 전의 수신기에 그때로 신호가 가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빨리 이 기계를 가지고 송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원판(圓板)을 빨리 돌렸습니다. 그



전신반복기

“혹 이상한 일이지요. 무슨 음악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음 이상한 일인가! 뭐봐 어찌 나는 소릴까?” 라고 이상히 생각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무엇이 생으로 생긴 음악이 구멍을 스치고 갈라 벽의 진동(震動)으로 음악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벽에 있는 원인이란 일 전진진으로 파진으로 음악로 생이래라 자꾸는 나게 되서, 나중에 그루로 파놓을 음악이게 되면, 그와 똑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같은 보인이 벽에 파진 것은입니다. 그래서 그벽부의 에디슨은 전진진부기는 아주 있어 벽에, 나란 음성을 기록하는 원리 벽에서만 벽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루 생각한 결과를 생이래져서 조수 원리까지 두루 그벽부 고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원이한 사람은 벽의 벽 부만 그의 벽에서 여러 가지 보형을 만든 사람인데, 이전에 같은 같은 보형은 벽에 한 것이지 전라 집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전 어찌 소릴 것입니까? 꼭 이상합니다.”

라고 물으니,

“음 그저, 소리 받아 주는 것을 만들지요.”

라고 에디슨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소리를 받아 주다니 보무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뒤에간 그벽부 만들어서 갖다 했습니다. 연구소 때의것. 사람이 저 있는 가운데, 에디슨은 조그만 나팔의 입을 때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의 파진으로 벽의 소리가 들리었다지. 그 같은 한 가지의 벽, 에디슨 가난 자로서는 못도 못하단다지.”

장 박사의 말이 오는 국민이들의 노래를 듣고 보았는지 에디슨이 보았습니다. 따위로 나쁜 자로서는 못도 못하단다지.

아! 음악 장으로 생도 못한 자로서는 못도 못하단다지. 에디슨은 그 때 모 벽의 전기(白熱電球) 발명이란 일 이 있었기 때문에, 음성기를 개량시키는 일은 그 후부터 9년 동안 손을 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정정에 50 명, 아니 100 명분의 일을 한 에디슨인지라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의 벽에 착안을 해서 조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뜻 밖에도 알몸둥이로 미국에 건너 온 독일 청년과, 조그만 수선소(鑄精所)를 가지고 그날그날을 살아 나가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의 발명(發明)**

“그렇다. 발명이나 발명이란 것은 저급하게 내가 상상하던 것 같이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나도 굳은 결심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또, 어떤 공회 한 구석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

동요

# 꽃씨

이태선

푸른 꽃씨에게  
 기쁜 벽이 파오고  
 푸른 벽이 겨라  
 빨간 꽃 피고  
 빨간 꽃 속에서  
 까만 씨가 나오고,



(그림·정현웅)

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으로, 원한 벽시암 바다를 건너 북서에서 건너 온 에밀·벨라이니인비, 한 일년 동안 행상(行商)을 하다가, 칼벨크 박사의 연구소에서 조수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동안 일하던 때에, 우연히도 주인 박사는 굉장히 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날 박사는 너무 연구이 글 붙여서 저대 먹을 것도 있어 버렸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손으로 벗겨내고 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벽을 한 벽에서 입에 넣

소녀, 만 것으로 같고 만지 않은 것  
도 같고 음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물로 양치질을 하고 입  
을 수건으로 씻었는데, 그 때 수  
건이 입술에 닿자마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단 맛이 납니다. 자  
! 대관절 어째서 이렇게 단맛이  
날까? 하고 생각하다가 손가락  
으로 입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  
걸 또 웬일입니까? 아까보다도  
훨씬 더 단맛이 나니?

“아하 알았다. 그건 ‘모루달’을  
분석(分析)하는 사이에 굉장  
히 단 물질(物質)이 생긴 모양  
이다.”

이렇게 생각한 박사는 곧 시험  
관(試驗管)을 조사해서 결국 그  
본체(本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이 바로 오늘날 약품 기타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는 “맛가린”이  
란 것으로, 이것을 발견한 찰멜  
르 박사는 만년에 세계적으로 유  
명해졌습니다. 그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펠리나가 그것을  
보고 크게 감격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수를 그만 두고  
물 유성기의 재양에 착수했습니  
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에디슨이 발명한 것과는 아주 다  
른 녹음법(錄音法—소리를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반(原盤—레코오  
드판을 만들어 내는 판이 될 것)  
을 만드는데, 아연판(亞鉛盤)위에  
다 초(蠟)를 발라서 여기에 녹음  
을 해가지고 용(體)으로 된 금  
속면(金屬面)을 찍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아주 쉽게 그  
리고 정확한 원반을 만들 수 있  
는 것인데, 분명히도 그는 자기  
손으로 완전한 모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  
을 아는 적당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있는 차에 마침 프그만 기계

점을 벌리고 있는 엘프리트·손  
손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청년의 협력으로 완성

손손은 북미(北米) 뉴욕·자이  
시어주(州)의 칼럼버린 국제적  
아주 프그만 장점을 벌리고, 아  
침부의 자네까지 된 물건들을 보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의  
일 때, 스무 때, 아니, 열 때 까지  
공상을 하는 성질이어서, 아무리  
넓고 넓은 물건일지라도 자기 손  
에 걸리기만 하면, 이것을 보지  
서 무슨 훌륭한 물건이리요 믿을  
어 낼 수 없을지 하고 늘 궁리하



박 태 원 선생 지은  
장 편 역사 소설

# 이 <sup>순</sup> <sup>진</sup> <sup>자</sup> <sup>군</sup> 李 舜 臣 將 軍

이 소설이 어떠한 소설이라는 것은 “소학생” 독  
자 여러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  
학생”에 언재 되어 독자의 감격을 사내면 “이  
순진 장군”이 예부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매우  
거 글씨는 우리 민족의 자랑 충무공 이 순진 장군  
이 걸사하신지 350주년이 되는 때로서, 조선 사관

이런 누구나 한 번은 읽어야 할 장군의 역사 소설  
입니다. 읽는 도중에 저절로 피가 끓고, 주먹이  
귀어지고, 분량이 치밀어, 참으로 이 어른이 난  
기치고 감 고운을 우리 책값 180원  
는 익히 알 것입니다.

(김 기환 선생 그림) 발행 아 협



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천 권의 이나로써  
시대의 승인과 보람을 받으며  
당당한 부락의 힘으로써 나는 미  
친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와 같은 좋은 기회에, 이  
경과 북쪽의 나는 백의이나  
적과 같은 합력의 이 불안을  
완전히 보았다.”

그 불안을 그는 백의이나와 같  
게 손을 잡고, 있는 제주를 따라  
서, 마침내 천진식(天眞式)을 성  
거를 만들어 보았다. 이 보람  
없는 프로그램 수선일 주인이 아  
깝고, 나중에 적의 승리가 회사  
를 막는 공손 마로 그 사람입니  
다.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승선  
기의 승선기 같은 물론 불행으로  
우연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의 주의  
를 끈 것은 그 장로입니다. 그렇  
게 천진식의 부락의 소. 모라야라  
는 마을가가 있었으며, 그는 빛과  
안락 같은 것도 될 일부를 한 목적  
을 가지고 있었습니. 그런데 이  
지는 무분기한 불행 그 것으로 가  
서 아주 긴거리한 것이 좋은 것입  
니다. 또한 이의의 소의가 남  
부라고, 또의를 나한 속으로 번지  
르라고, 잘 알도 북쪽으로 불행  
으로 보기도 하므로, 그 모양의  
함도 되어있고 나는 이 모양을 그  
였습니다. 그것의 무분기한 공손의  
손과 같이 있었으며, 공손을 이진  
할 공손의마로 공 손의 보수의  
장로(장로)로 보기도 된 것입니  
다. (끝)

# 그림 속담



익빠른 고양이가 있을  
못본다

재빠르고 작은 고양이가 앞  
을 못보고 실수를 한다는 것으  
로, 너무 재빠르고 작은 세력은  
사람이, 모라야 실수가 많고  
남색이는 일이 있다고 비유는  
말이다.



핑계 없는 무덤 없지

무슨 일이든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뜻으로, 이것을  
따라가 부락을 받았을 때, 이  
경과 재빠르며 합력 의하는  
사람, 또는 무슨 일에 핑계와  
있을 때, 자기 잘못은 돌리지  
않고, 핑계를 뒤에 책임을 전  
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그림·김 의환)

큰 방축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이 무리 크고 혼돈하게 좋은  
방축이라도 보이지 않을만큼 작  
은 개미 구멍 때문에 차차 무너  
지게 된다는 뜻으로, 프로그램  
매수되지 않은 일이라고 해버  
려 무는 사람을 타이르는 말이  
니, 작은 일이라도 온갖 정성  
을 다 들일 것이다.



주인 많은 나그네 저택  
끓는다

결 가는 나그네가 잠갈 곳이  
너무 많으면, 한 끼 저녁도 굶  
기 쉬움다는 뜻으로, 무슨 일과  
한 목적과 속심이 많으면, 나그  
네는 한 가지도 성공 못하도  
며 실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빗  
대어 말함이다.



# 재소식

## 어떻게 달라지나? 중등학교 입학 시험

이런이름을 올리고, 어른들의 기쁨을 초이게 하고, 때마다 머글고 골치를 앓으면서도 콧물로 해결짓지 못하는 중등 학교 입학 시험 문제! 즐거운 마음으로 입학 고에 가야할 이때가, 어린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때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나?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불과해서 중 학교에 들 수 있을까? 만일 못 붙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어린이 들은 초조하고 겁난 남아지, 몸이 파리하도록 머리를 싸개고 입학 시험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 난관을 풀고 나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니 어찌된 까닭일까? 학교 수만 많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의 형편이며 실정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만 가지고라도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뽑아서 배우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오던 문교부에서는 을부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입학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문교부 지식에 의해서 서울시 학부국

에서 제정 발표한 고사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몇 가지만 추려서 알려드리기로 했다.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지 기대되는 바이다.

### 1. 학교 선택과 학교 성적

- (1) 지원 학교의 선택은 자기의 정열이나 재주를 깊이 생각해서 고르되, 될 수 있는 때로 자기가 사는데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것.
- (2) 입학자 선발은 출신 학교의 4, 5, 6 학년 학업 성적을 300점으로 하고, 수험 학교의 지능고사 성적을 300점, 합해서 6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신체 검사와 결과를 참작해서 사정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출신 학교 학업 성적 중 180점은 졸업 기본 점수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기로 하고, 120 점은 삼계년 성적(석차)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 (3) 제 6학년에 재학하지 못한 사람, 또는 재학 증명서를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입학 시험 수험자 결정 시험을 실

제되서, 여기에 합작한 자항은 중등 학교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2. 지능 고사

- (1) 지능 고사는 반드시 3회나 나눠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 차례의 시험 시간은 한시간이 내로 하고, 문제 수는 50문제 이상을 내기로 되었다.
- (2) 문제의 내용은 국민학교 교육 경로를 표준으로 수험자의 실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
- (3) 고사 문제는 어느 학부에서 낸 것인지가 표시하지 않기로 되었다.
- (4) 문제 가운데 한자(漢字)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범위내에서 한글과 병서(平書)하게 되었다.
- (5) 지능 고사의 문제는 "가려잡기" "배우기" "배 맞추기" "글씨서 가려잡기"의 네 가지인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1. 가려잡기 (맞는 데다 O을 칠 것)

1.  배 맞추기  글씨서  
 2.  배우기  가려잡기

### ★ 좋은 아힘 책들부

그림 이야기 **그림 깎리버 여행기**  
 책값 30원 • 송로 5원  
 그림 이야기 **그림 토끼 전**  
 책값 40원 • 송로 5원

###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永保빌딩  
 振替京城 32543番

정치가  
민중의  
목소리

42. 때우기(□속의 말을 넣어서 글줄 만들.)

공반 □□ 이 좋다.

43. 짝 맞추기 (낱말 위에 번호를 붙여서 글줄 만들.)

꽃과 꽃은 같은 말다

44. 물에서 가려잡기 (바른 글 위에는 ○를 쓰고, 틀린 글 위에는 ×를 친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 3 신세 검사

(1)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는 자임이라오 공부할 때는 걱정이 없으면 실락을 피가한다. 그러나 전심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안된다.

### 4 시험 기일

(1) 시험은 각 중등 학교를 두 개로 나뉘서 두 번에 실시한다.  
(2) 제1회는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3) 제2회는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 그러나 제1회 제 1회와 2회 합격자 사람은, 제2회 제 1회에서는 수험(受驗)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제1회 합격자 발표를 7월 7일에 하고, 제2회 시험이 시작되는 7월 8일에 합격자 전부를 소집하게 된 때문이다. 따라서 제 1회 제 1회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제 2회 제 1회가 지어진 학교에서 수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 협  
상타기



별첨이  
발 표

## 작 문

|   |       |                       |   |   |   |
|---|-------|-----------------------|---|---|---|
| 특 | 등     |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 원)  | 서 | 양 | 희 |
| 우 | 등     | (상장과 상품과 상금 3,000 원씩) | 박 | 영 | 호 |
|   | 1. 일  | 식 판 찰                 | 최 | 경 | 자 |
|   | 2. 나  | 의 병                   | 김 | 문 | 웅 |
| 입 | 선     |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 원씩) | 장 | 영 | 순 |
|   | 정사지   | 어머니                   | 김 | 문 | 희 |
|   | 선외가작  |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 원씩)   | 박 | 영 | 호 |
|   | 1. 로  | 거                     | 최 | 경 | 자 |
|   | 2. 지  | 각                     | 김 | 문 | 웅 |
|   | 3. 우리 | 어머니                   | 장 | 영 | 순 |

## 동 요

|   |        |                       |   |   |   |
|---|--------|-----------------------|---|---|---|
| 특 | 등      |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 원)  | 서 | 양 | 희 |
| 우 | 등      | (상장과 상품과 상금 3,000 원씩) | 박 | 영 | 호 |
|   | 1. 전   | 북 대                   | 안 | 경 | 자 |
|   | 2. 아침  | 이불속에서                 | 강 | 홍 | 자 |
|   | 3. 동   | 생 구 두                 | 김 | 문 | 웅 |
|   | 4. 봄   | 저 고 리                 | 장 | 영 | 순 |
|   | 5. 뚝   | 단 배                   | 유 | 근 | 일 |
| 입 | 선      |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 원씩) | 박 | 영 | 호 |
|   | 1. 산   | 길                     | 김 | 문 | 희 |
|   | 2. 난   |                       | 김 | 문 | 웅 |
|   | 3. 물   | 배 소리                  | 장 | 영 | 순 |
|   | 4. 저녁  | 구름                    | 장 | 영 | 순 |
|   | 5. 바   | 람                     | 이 | 창 | 화 |
|   | 6. 산   |                       | 이 | 창 | 화 |
|   | 7. 우리  | 아저 두살                 | 이 | 창 | 화 |
|   | 8. 봄   | 비                     | 양 | 성 | 자 |
|   | 9. 수양  | 비둘                    | 성 | 은 | 숙 |
|   | 10. 선생 | 님 눈                   | 김 | 상 | 미 |

학 교 상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에 드림

(작품들은 책으로 꾸며 9월에 냄)

# 少年三国志

박 태원 · 지음 \* 김 기창 · 그림



## 제 4 장 관 운 장 (關雲長)

### 四. 안량(顔良)·문추(文醜)

그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동군 태수(東郡太守)에게서  
 급보(急報)가 올라 왔다. 문  
 원 소가 하북지방의 유명한 장수  
 안량(顔良)으로 선봉(先鋒)  
 을 삼고, 군사 십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백마(白馬) 땅을 쳐려고  
 한다는 것이다.

조 조는 곧 군사 십오만을 거  
 느리고 문소 백마로 나아가, 심의  
 의지하여 진(陣)을 쳤다.

안량은 과연 명장이다.

조 조의 영을 받고, 충현과 위  
 속 두 장수가 말을 달려 나갔  
 으나, 장합을 못 다 싸워서 안량  
 의 말에 배임을 받고, 맹장(猛將)  
 서 황이 용기를 불내어 또  
 나가 싸웠으나, 겨우 이십 합을  
 겨루어 보고는 그대로 패하여 물  
 아 오니, 그 뒤로는 감히 나가서  
 싸우려는 장수가 없다.

조 조의 마음에 근심이 클 때,  
 모사 정숙이 나서서 말한다.

“안량을 발할 장수가 꼭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만 말어요?”

“관운장이 맞습니다.”

“나도 운장이 아니거든 안량  
 을 발할 사람이 없을 줄은 알  
 지마는, 나만 제가 공을 이루  
 고 보면 곧 자퇴하거나 암살과  
 근심이요.”

그러나 정숙은 말한다.

“유비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반드시 월 소에게로 갈  
 을 것이니, 이제 운장을 시켜  
 원 소의 군사를 쳐드리고 보  
 면, 월 소가 필연코 유비를 의  
 심하여 죽여 버릴 것이니,  
 유비가 죽은 다음에야 운장의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 조는 급히 사람을 러모르 보  
 내서 관운장을 정하여 왔다.

운장이 이르자, 조 조는 그와  
 함께 상위로 올라가 안량의 진  
 세(陣勢)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하북 군사들이 저렇게 용감  
 (雄壯) 하오그러.”

그러나 운장은 미웃는다.  
 “저의 눈에는 모두 저 위수이기  
 를 못 봐 놓은 것으로 봐야 하  
 니 모입니다.”

조 조는 이 때에는 수적기(數  
 字訣)가 서 있는 아미를 가리키  
 며 말하였다.

“저기 말을 세우고 쫓는 장수  
 가 바로 그 유명한 안량어  
 요.”

그러나 운장은 역시,

“제가 보기에만 마지 것저를  
 못 알아 놓고 서서 모가지들 푸는  
 술 같습니다.”

영소(陰笑)하기를 마지 않으  
 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비록 겨우는 없으나, 천  
 군백마(千軍萬馬) 가운데로 돌  
 어 가서 안량의 머리를 쳐  
 다가 송상(送喪)의 바치오리라.”

말을 마치고 저포마에 뛰어  
 올라, 정공포를 활자 잡고 안량  
 의 진중으로 달려 오니, 그 경한  
 기색에 놀라서, 하북 군사들이  
 놀라지 못 한다.

운장은 그러므로 안량에게도  
 의 물어, 그가 이제 손을 놓  
 사이도 없이 그 머리를 한 칼에  
 베어 말머리에 달고, 다시 말  
 재워, 마지 무인지경(無人之境)  
 에 들것 하니, 하북 군사들은

한 번 세력 보지도 못하고 제각기 부상을 초방하의 어지러이 받린다.

이를 보고 조조는 군사를 휘둘러 그 뒤를 감히 쳐서, 하북 군사를 백만이나 죽이고 마궈(馬鬣)와 기궈(機械)를 수 없이 빼앗았다.

석공이 끝나자 운장이 산으로 돌아와, 안망의 수급(首級)을 조조 앞에 바치니, 조조는 그의 공노를 사배하여,

“명군은 참으로 신인(神人)이시오.”

그러나 운정은 겸사하였다.

“저 같은 제주야 죽히 믿을만한 것이 죄오리까? 저의 아우 장익덕은 백만 군중(百萬軍中)에 상장(上將)의 머리 비기물, 마치 꾸미니 속에서 물건

꺼내듯 하지요.”

그 말을 듣고 조조는 감격 할라; 모든 장수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후에 만약 장비를 만나는 일이 있거든,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여라.”

한 편; 월소는 자기의 가장 사랑받는 장수 안망이;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긴 장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듣자 크게 놀랐다.

“안망을 죽였다는 장수가 대체 누구요?”

그 때 모사 하나가 일러 준다.

“안망 같은 명장을 죽일 사람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더구나 그 장수가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고 하니, 틀림 없이 유원덕의 아우 관운장일 것입니다.”

월소는 크게 노하였다. 그는 곁에 앉아 있는 원덕을 돌아보고,

“네 아우가 나의 사랑하는 장수를 죽이더니, 아마도 내가 묻게 시킨 일일 것이다. 내 비를 이때로 두어 줄 수 없다!”

물, 모부수(刀斧手)를 불러 끌어내다가 무릎 꿇게 하고 하니, 원덕은 조조

에게 말한다.

“어찌 한 편 관운장 뿐이 아니라 제까지의 경의를 같이 내리려 하십니까? 제가 조조와 싸워서 패한 뒤로, 아우 관운장의 소식을 이제껏 모르고 지내는데; 또 세상의 험악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 하여 관운장이라 할 수 있으리까?” 월소는 본래 아무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 원덕의 말을 골짜기 마음에 그러히 생각하여, 다시 그를 위로 정하여 올린 다음에, 앞으로 조조와 싸울 일을 의논하였다.

그 때, 한 장수가 나서며; “안망의 원수는 제가 갚으리다!”

하고 뉘칠다.

보니 안망과 함께 명장으로 이름 높은 문추(文醜)다.

월소가 이를 리락하자, 원덕은 밀하였다.

“나도 문장군과 함께 가 보고 싶소이다.”

월소는 문추에게 군사 일만을 주어 먼저 떠나게 하고, 원덕에게 감관을 주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이 때 조조는 운장이 안망을 버린 것을 보고 마음에 더욱 금경하여, 곧 철저히 아뢰고 관수정후(漢壽亭侯)를 봉(封)하였다.

그러자 망아(攔馬)가 보라기 문, 월소가 다시 문추로 전봉을 삼아 황하(黃河)를 건너 왔다고 한다. 조조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양군(兩軍)이 서로 전 지고  
싸우자 조 조는 수하 장수들을 보  
고 소명하였다.

“누가 가서 문 추를 사로잡을  
고?”

말이 떨어지자 장로·서 황 두  
장수가 일제히 말을 몰아 나아갔  
다.

그러나 문 추의 높은 수단이 안  
말만 못하지 않다. 그는 먼저  
말을 쓰아서 장 로가 탄 말을 맞  
추어 겨우려드리고, 다음에 서  
황을 맞아서 싸웠다. 십여 합이  
못되어 서 황이 말 머리를 들리  
어 달아난다.

문 추는 용서 않고 그의 뒤를  
잡히 쫓았다.

바로 그 때다. 문득 조 조의 진  
중으로부터 한 장수가 소리를 벽  
려 같이 지르며 말을 달려 나오  
니 곧 관 윤정이다.

문 추는 그의 얼굴이 붉고 수  
염이 긴 것을 보아, 안 량을 죽  
인 장수기를 짐작하고, 서 황은  
버려 두고 그에게로 달려 들었  
다.

그러나 문 추도 관 윤정의 적  
수(敵手)는 아니었다. 어울어  
져 싸우기 참 함이 못되어 그는  
마음에 걸을 먹고, 그대로 말을

채찍 노망한다.”

그러나 적 토마의 빠른 걸음을  
당할 길이 없다. 관 윤정이 곧 뒤  
를 쫓아 한 칼로 문 추를 배어  
버리니, 이 때에 유 현덕은 군사  
를 이끌고 강 건너 편에 이르렀  
다가, 군사에게서 이 벌에도 일  
굴 뚫고 수영 긴 장수의 손에  
문 추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황  
망히 장변으로 말을 채찍 나뒀  
다.

눈을 들어 강 넘어 저편 언  
덕을 바라보니, 한 장수가 군사  
십여 명을 거느리고 나는듯이 말  
을 달리어 왕내하는데, 그 기호  
(旗號)에 “한수정후 관 윤정(漢  
壽亭侯 關 雲長)”의 인공 글자가  
뚜렷하다.

현 덕은,

(원래 내 아우가 죽지 않고 조  
조에게 있었고나!……)

가만히 하늘을 우러러 사색하  
고, 곧 불러서 서로 보려 하였으  
나, 그 때 마침 조 조의 군사가  
크게 몰아 들어 오므로, 그는 하  
는 수 없이 그대로 군사를 수습  
하여 돌아갔다.

현 소는 궁지들의 보도로, 이  
벌에도 관 윤정 손에 문 추가 죽

었다는 말을 듣지 못지 크게 노  
하였다.

“월, 유 비판 놈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나?”

얼마 안있어 현 덕이 들어 온  
다. 그는 곧 노부수에게 말하  
여 끌어 내어다가 무릎 꿇이  
하였다.

현 덕은 급히 물었다,

“대제 계계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시켜서 이 벌  
에 또 내 장수를 죽이려고도, 그  
때 죄가 없다고 일말을 믿느  
냐?”

현 덕은 말하였다,

“부디 노여움을 무시하게 말  
씀을 들으십시오. 조 조가 본  
래 지를 심히 미워하는 터이  
라, 그때 계수 명공(明公)의  
공을 의탁하고 있는 줄 알고  
서, 일부러 윤정을 시켜 안 량  
문 추를 죽이게 한 것이니, 이  
것은 바로 조 조가 명공의 손  
을 빌어 저를 죽이려는 죄입니  
다. 명공은 부디 깊이 생각하  
여 보십시오.”

듣고 나자 현 소는,

“따는 옳은 말씀이요. 하마터  
라면 조 조의 감사할 계교에 속



● 그 는 힘

선생 - 지구는 인력(引力...물질을  
이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이 있

어, 우리들은 항상 지구에 끌  
려우고 있다.

생도...그러면 천장에도 인력이  
있습니까?

선생...예?

생도...파리는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어도 떨어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서울

현실교 5년 상 은식)



● 맛이 없는 까닭

있과시간에 선생이 질문을 하였  
다.

선생...예

말에는

맛도 없

십니까?

라고 기

손을 들었다.

선생...어디 대답해 보라,



이, 내가 뭐 없는 이를 축일  
편 라였구로.”

하고 다시 위로 향하여 올리  
니, 현덕은 그에게 사례하기를 마  
지 않았다.

“명공의 은덕(恩德)을 갚을 길  
이 없으니, 가만히 사람을 운장  
에게로 보내서 이 곳으로 불러  
올라 왔는데, 생각에 어떠 하  
십니까?”

원 소는 크게 기꺼워,  
“만약 운장만 내가 알고 본다  
면, 안 랑·문 추 열 사람보다  
나을까 보오.”

현덕은 즉시 글을 써서 사람을  
주고, 밤을 모아 허도로 가서  
물러 관 윤장에게 친하게 하였  
다.

### 五. 회피패(廻避牌)

한 편, 관 윤장도 두 번 싸움  
에 현덕이 원 소에게 몸을 의탁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여 들었  
다.

그는 희도로 돌아오자, 형님을  
찾아서 떠날 일을 생각하며, 앉  
으나 서나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비록 항복하던 때 단단  
히 따져 두기는 하였지만, 조 조  
가 과연 그 언약을 지켜, 자기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여 줄지 의심  
스러웠고, 또 자기가 그의 정수  
안 랑·문 추를 죽인 허에, 원 소  
에게로 형님 유 현덕을 찾아 가  
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염  
려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  
아 왔다. 안으로 정하여 물어 물  
으니, 하북 원 소에게서 왔노라  
한다.

운장은 크게 놀라 급히 사람  
을 물리고, 단 들이 무릎을 마주  
대하고 앉아서 물었다.

“대체 무슨 일로 오셨소?”  
그 사람은 곧 품에서 한 봉서  
찰(書札)을 내어 준다. 운장이  
받아 보니, 곧 현덕이 보낸 것으  
로, 글 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우리가 북강아동산에서 영계의  
의리를 맺어, 죽고 살기를 함  
께 하기로 맹세하였더니, 오늘  
에 와서 이렇듯 서로 배반할  
줄을 누가 알았으리오? 그때  
가 공명(功名)을 세우고 부귀  
(富貴)를 누릴 생각이거든, 부  
더 이 사람의 머리를 베어다가  
조 조에게 바치라……

물론 현덕은, 자기가 정말 영

계를 저버리고 부귀와 공명을  
취하기 위하여, 조 조에게 항복  
한 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이다.

그러나 그 글을 읽어 보니, 운  
장은 설음이 부마히 오르는 것을  
억제할 길이 없다. 그는 목을 높  
아 찬 차를 들고나서 말하였다.

“내가 형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오. 다만 제신 곳을 몰랐  
기 때문이요. 내 어떤 부귀를  
얻 내서 전날의 맹세를 저버릴  
까닭이 있으니까? 답장을 써  
드릴 터이니, 먼저 가지고 가  
시오. 내 이곳에 올 때에도  
명백(明白)하였으니, 갈 때에  
도 명백하게 조 조에게 하직을  
그한 다음이, 두 분 아우며님  
을 모시고 가리다.”

운장은 곧 답장을 써서 그 사  
람에게 주어 물러 보내고, 안으  
로 들어 가 두 부인에게 이 뜻을  
그한 뒤에, 상부(相府)로 갔다.  
조 조에게 하직을 그하기 위함  
이다.

그러나 조 조는 벌써 관 윤장  
이 들어 온 뜻을 경각하고, 곧 문  
에다 “회피패(廻避牌)”를 걸어  
놓았다 “회피패”란 승상이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병모… 불이 난 맛이 있으면 모두  
너무 가혹히 배탈이 나기 때문  
일너라. (서울 덕수교 3번 박  
경서)

#### ● 이상한 병

병… 동선 속에서 빵을 꺼내는 요  
술을 부린다. 저 봐라. 이 동선  
속에서 아무 것도 없지?  
동생… 응 그러면 정말 빵이 나오  
우?



형… 그럼 꼭  
꼭히 보구  
있어.  
동생… 아이  
좋아라.  
형은 동선

에다 바람을 넣어서 동동하게 한  
다음, 바늘로 구멍을 하나 뚫었  
더니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선이 튀었다.  
형… 저, 빵이 나오게 않았어.

어때? (정기 수석교 5년 권 5명)  
● 해

동생이… 저 해는 왜 있는지 알아  
?

바보… 응 그것도  
모를라구.



동생이… 그럼 어  
디 알래봐.

바보… 나 밤에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 뭐냐.  
(서울 서대문로 5년 이 중명)

내어 가는 때다.

윤장은 이튿날, 다시 상부로 들어 갔다. 그러나 문에는 여전히 회피책이 걸려 있는 채로다.

생각하다 못하여 윤장은 장로를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정말인지 핑계로 그러는지 병이 들어 누어 있다 하고 만나 주지 않는다.

윤장은 조조가 자기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속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떠날 뜻이 이미 굳은 그였다.

마침내 그는 하직을 고하는 편지를 써서 사람을 시켜 상부에 갖다 전하게 하고, 그 사이 조조에게서 여러차례 받은 금백(金帛)을 모조리 곳간에 넣어 굳게 문을 봉하고, 하수정우의 인수(印綬)를 기둥에 걸어 놓은 다음, 두 부인을 수레에 태워 모시고, 윤장은 적토마에 올라 정통도 손에 잡고 수레를 호송(護送)하여 북문(北門)을 나섰다.

이 때, 조조는 모사와 장수를 모아 놓고, 마악 관 윤장의 일을 의논하려 하던 차에, 사람이 들어 와서 윤장의 서찰을 올린다.

같이 쳐 보크나자, 조조는 크게 놀랐다.

“윤장이 기어이 갔구나!”

본자 탄식하기를 마지 않을 때, 또 사람이 들어와 보하기를, 윤장이 승상이 내린 금백을 모두 봉하여 곳간에 넣어 두고, 하수정우의 인수는 기둥에 걸어 놓은 다음에, 두 부인의 수레를 모시고 북문으로 나갔다 한다.

“윤장이 기어이 갔구나!”

조조가 다시 현 별 한숨을 크게

할 때, 평소엔 윤장과 사이가 좋지 못한 채 양(蔡陽)이라는 장수가 나서며,

“제게 군사 삼천만 내리시면, 곧 가서 관 우를 사르잡아다 송상께 바치오리다!”

한다.

그러나 조조는,

“윤장이 옛 주인을 잊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이렇듯 명백하니, 참으로 대장부(大丈夫)라 너희들은 만만히 그를 본받아라!”

하고, 마침내 채 양을 꾸짖어 물리친 다음, 조조는 장로를 돌아보고 분부하였다.

“윤장이 내가 내린 금백이며 인수를 모두 두고 떠났다니, 재물로도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고, 벼슬로도 그의 뜻을 옮기지 못할 것을 가히 알겠다.

내 길이 그를 공경(恭敬)하는 터이니, 너는 곧 뒤를 쫓아 가서 윤장더러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라. 내 노비(路費)와 전포(戰砲)를 주어 뒷날의 기념(記念)을 삼고 싶다.”

장로는 영을 받고 곧 말을 달려 북문으로 나갔다.

본래 윤장이 탄 적토마는 하루에 능히 천리를 달리는 말이다.

그러나 다만 두 부인의 수레를 호송하느라고 고삐를 늦추어 천천히 가더니, 문득 등 뒤로서 누군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물이다 보니 장로다. 윤장은 수레를 모시는 종인(從人)에게, 그대로 가공도(官道)로만 곧장 가라 분부한 다음, 자기는 달려 뒤에 말을 세우고 장로를

향하여 물었다.”

“문원은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장로가 대답한다.

“형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으시고, 송상께서 특히 벼슬을 하시며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윤장은 속으로 조조가 필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리라 생각하여 정통도를 고쳐 잡고, 멀리 터끝이 일어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가 그곳에 이르렀다. 그는 허저, 서황, 우금, 이천을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나온 것이었으나, 모두들 손에 무기(軍器)는 들고 있지 않다. 그것을 보고 윤장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조조는 말을 멈추고 묻는다.

“어찌 하여 윤장은 이렇듯 중충히 떠나시오?”

윤장은 말 위에서 몸을 굽히고 대답 하였다.

“옛 주인이 하복에 계시던 말씀을 듣고, 송상께 하직을 고하려 여러 차례 상부로 들어 갔사오나, 죄옴지 못하여 떠날 관철을 올렸거니와, 송상께서는 부디 전날 제게 하신 말씀을 저바리치 마옵시오.”

조조가 말한다.

“내 어찌 한 번 입 밖에 내 말을 저바릴 리 있겠소? 다만 장군이 먼 길을 가시는데 노자가 녀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약소한 것이나마 보되려 하오.”

한 장수가 소반에 바쳐 황금(黃金) 한 덩어리를 올린다.





그러나 운장은 받지 않았다.  
 “어찌 화에 숭상시켜 내리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  
 다. 이 화들은 두셨다가 정수  
 들을 삼 수집시오.”  
 “정군의 크나큰 공로를 막스된  
 재물로 인분의 일이나마 갚을  
 자 하는 의에, 그마지 사양할  
 것은 무엇이오?”

“별 불만한 적은 수고를 그렇  
 곳 말할라할 것이 못됩니다.”

조조는 름송 짓고 말하였다.  
 “운장은 원래의 의지(義士)전  
 람, 네가 복이 막히서 으러 미  
 팔어 있게 못하는구려. 정(情)  
 으로 쓰리는 것이니 금포(錦  
 袍)나 차양 말고 받아 주오.”

그의 말이 떨어지자, 간 정수  
 가 말에서 내려 두 손으로 전포  
 를 받들어 운장에게 바친다.

운장은 즉시 무슨 번이나 있을  
 자 꾸러워서 감히 말에서 내리지  
 못하고 정릉포 줄으로 금포 자  
 띠를 걸치어 어깨에다 걸고,

“그러면 젖날 마시 피오려 참  
 나마.”

마시 힌 빈 몸을 굽혀서 예를  
 베풀 나옴에 곧 다리를 건너 북  
 쪽을 바라고 말을 달리었다.

조조는 잠깐 그 곳의 서서 그  
 첫모양을 바라 보며, 외롭고 설  
 설한 정을 지켜하지 못하였다.

— 계속 —

###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 ▲태수(太守)…지방관(地方官)의  
 만 이름. 수령(守令) 이라고도  
 한다.
- ▲명장(猛將)…사나운 정수.
- ▲천군만마(千軍萬馬)…수 많은  
 병마(兵馬).
- ▲무인지경(無人之境)…아무도  
 없는 곳.
- ▲마필(馬匹)…말.
- ▲기재(器械)…병장기(兵仗器),  
 무기(武器).
- ▲수급(首級)…머리.
- ▲신인(神人)…지 역의 제주가 남  
 에지 뛰어나, 귀신 같은 사람.

▲백만군중(百萬軍中)…백만 명  
 이나 되는 군사를 가운데.

▲상장(上將)…가장 지위가 높은  
 장군.

▲도부수(刀斧手)…큰 칼과 큰  
 도끼를 쓰는 군사.

▲한수정후(漢壽亭侯)…비술 이  
 들.

▲탐마(探馬)…적군의 동정을 살  
 펴서 보고하는 군사.

▲기호(旗號)…기의 호.

▲명공(明公)…적 편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 “현명한 방심” 이  
 한 뜻.

▲상부(相府)………승상이 었는  
 곳.

▲금백(金帛)…황금과 비단.

▲인수(印綬)…인복지.

▲노비(路費)…길 갈 때에 드는  
 돈. 이비(旅費), 노자(路資)라  
 고도 한다.

▲군기(軍器)…병장기와 같은,  
 든 무기.

▲금포(錦袍)…비단으로 만든 포  
 로, (鎡袍) 혹은 견포(戰袍).

# 고무 이야기

## 최명환

지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 안 될 이 고무는, 로널드 스가 미국을 발견한 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토인(土人)들이 고무로 만든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서반아 사람들이 보고, 적 이상한 것도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더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처음엔 적 귀한 물건으로 값도 적 비쌌고, 지금부터 한 193년 전 서기 1755년에 프도아 일금을 일부러 짚기의 진을 데어졌 러케 보내어 기증했다 고무를 바르게 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이 고무를 이용할 줄을 몰라 그때로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국의 화

학자(化學者) 프레이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178년 전 서기 1770년에, 신질모 쓴



(고무 나무)

글자를 지우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레이스는 산소(酸素), 암모니아, 질화질소(酸化窒素), 아황산(亞硫酸)가스 등을 발견한 유명한 화학자인 농사에 철학자(哲學者)이 있습니다.

고무를 글씨 지우는 데 쓰기 시작할지 53년 후, 서기 1823년에 영국의 막린이라는 사람이 고무를 벨진(과학약품의 하나)에 넣고 녹여서 그것을 행것에다 바르면, 벨진은 날이 가고 고무 반 남아 방수성(防水性)의 행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베인으로(우창옷)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남쪽 나라 무더운 열대(熱帶)지방에 있는 고무나무에서 따서 모은 유액(乳液)에다, 나산(靛酸)을 넣어 유액 속에 있는 고무질(質)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거침이 내어 프도아에 넣고 굳히기 말한 이 고무는, 보통으로 물렁물렁하고 탄력성(彈力性)이 없다 프도아 붙었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선 너무 물렁거리며 끈적거리고, 또한 나쁜 냄새가 나며, 온도가 낮은 곳에선 탄력성이 약해져서 부서지기 쉬워 완전히 하나의 물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영국의 막린이 발명한 방수성 질료를 발견한지 16년 후, 서기 1839년에, 미국의 고트리아라는 사람이 고무에다 유황(硫磺)을 섞으면, 벨진 발명한 것과 같은 질점(靱點)이 없게 되고, 온도가 낮아도 탄력성이 안 없어지고, 높아도 끈적거리지 않을뿐더러, 유황을 많이 넣고 적

### 고갯길과 층층대를 올라 갈 때는

곧은 고갯길이나 높고 긴 층층대는 꼭바로 올라 가면 금방 피로하고 올라가기 힘이 들지요. 그러므로 그림



## 이런 참심상

과 같이 꼬불꼬불 올라 가면 힘 안들이고 쉬우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꼬불꼬불 갈으려면 손바닥 자만 도리이 팔리 올라 가져옵니다.

### 주판은 노란 알을

주판의 생명은 알입니다. 라면 것은 벨적거리며, 커먼 것은 알이 속히 괴멸됩니다. 그러므로 주판은 노란 알을 먹이지 않습니다. 노란 것도 진한 것보다 조금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서 보는 것과 따라, 조금  
서 성질이 다른 것이 될  
물어지고, 적으면 그부지  
구거나 자부지 부부지의  
그부가 되고, 잘못이면  
업전의 후(勳)이나 양부  
의 양부, 또 전기의 전

선진 (進進) 이거리는  
선기를 다른 물질(物質)  
부 부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발한)을을 쓰  
이는 에보나이드를 만드  
는 그부가 전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의

발전된 후, 그부지제 보  
부 공업(工業)이 발달되  
어, 여러 분야 적일 스  
시는 그부지우제, 자진  
저 다이야, 전기 기구  
(器具)에 쓰는 에보나이  
드, 그부신 등, 많이 생

장되어 유용(有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  
으로 보아 실제(實際)로  
사람들이 그부를 쓰게  
될것은 불과 100 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  
조선은 그보다 훨씬 뒤  
부터 쓰이게 될것입니다.



## 9. 라 조 주 요 션

라조는 아마도 세 글자는 제일  
작은 제일 것입니다. 지금 **라조**  
문 앞에 나와서 라조도 커가 어  
질 지나 다니 커는 사람도 그 앞  
서 자발 남장이 갈아 되고 합니  
다.

같은 이빨과 같이 설명해 주  
셨습니다.

“이 세글자 사합에서 사는새 글  
자를 적어주 다니기 때문에, 몇  
년시 보면 글자가 적어지는 것이  
같은 글자의 정권 적자 많다. 이  
라조는 세 글자 제일 큰 것인 글  
자에 알로 또한 글 중에 제일 크  
다. 너희들 라조 알을 구경한  
일이 있나?”

그부를 보게를 삼삼삼삼 글  
니다.

“라조의 알은 부계와 보부  
나자합과 보부 합한 스부  
합부 보부합부. 이 무부 알  
의 알 합과 보오라할 시간의  
나 오로 설명해 주었나?”

“합합합합 합합합합 합합

히지요.”

라고 **유미**가 말하니라, **장조**가  
“아니야 부 사 같은 제위야 막  
막하게 살아라.”라고 반박하였습  
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사는 데  
친구 하나가 된 적은 라조 알을  
살아 보았는지, 자살 분을 살았  
어도 아주 막막해지지를 못했더  
런다.”

“그저 알을 한 번 보았으면!  
어저 이놈이 오늘 알 한 알 안날  
오려나?” 라고 **유미**가 적어 글  
미가 동래서 붙었습니다.

“아아니, 이놈은 생전가도 알  
하 알 못나보도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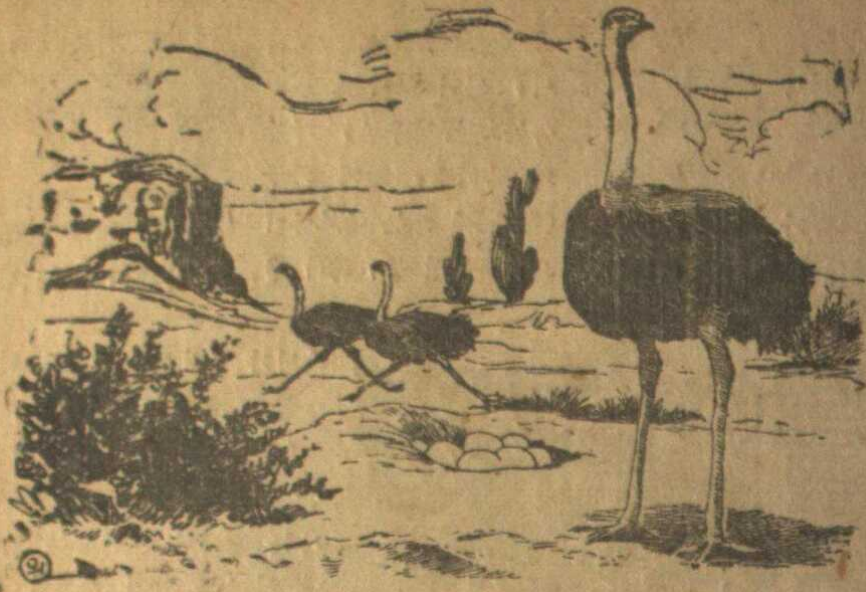
“왜요?”

“이놈은 숫자너복! 와와 아령  
제 날개가 잡고 온 놈은 숫치고,  
적자 보아라, 저렇게 피피피한  
것도 합졌도판다. 무로 편아니라  
죽는 무슨 제분지 모두 숫것이  
알것보다 아름답고 멋쟁이판다.”

“합합합 오직합 합합!” 라고

**유미**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모  
두를 크게 웃었습니다.

“알은 암컷이 낳지하는 그 알  
을 짝주는 비는 숫컷도 책임안  
지는 법이다. 따르는 알을 품  
을 적에는 암컷 숫컷이 번갈아  
품는 법인데, 숫컷은 밤에 품고  
암컷은 낮에 품는다고 한다. 동  
지해야 번것이 아니라 모래 바닥  
에 알이 이질 어 할 문거리만큼  
중얼이를 과고 그 위에 앉아서  
품는데, 물 아랫모리와 공지에  
있는 라안 열은 모래에 묻히어서  
보이지 않는고로 위험성은 적다.  
라조와 라조류의 세는 날개는 가  
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날지는  
못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것  
은 또한 가지의 자연의 법칙을  
증명하는 한 가지 실례가 된다.  
즉 무슨 기관이고 으뭇동안 작  
용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그  
기관은 차차로 퇴보하여 무용지  
물이 되는 법이다. 라조는 타미  
가 붙지 발달되어서 걷는 때는  
선수지만 날개는 무용지물이 되  
고 말았다. 걸음거리만큼 어찌도  
빠른지 보통 한 시간에 백미 걸  
을 걸으니 자동차 속도와 거의  
마찬가지다. 날개는 날지는 못하  
지만 뛰는 것 적에 바람을 잡고  
가게 되는 경우에는, 날개를 활  
활히 펴 붙처럼 이용하여 속도를  
더 높일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함



경어도 타고 놀기는 참을 것 같아.” 하고 유미가 말하자, 광호가 “난 그 눈이 멀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김 의환

(41 페이지 외전 보기 랑)  
자물쇠와 열쇠



일이다. 타조 알에 대해서, 또한 마더 할 말이 있다. 알을 그 속은 빨아 먹고, 그 껍질은 토인들이 불독으로 쓰는데, 잘 깨어지지 않고 튼튼해서 좋다. 그러고 타조는 길을 들이기는 쉬움지만, 그것도 풀이 나면 참 무서움이다. 그림 세 발에 한 번 걸어 재이면 혼이 날다. 타조들이 흥어 나면 모아서 춤을 추는 것도 할 가경이지. 날개를 췌 벌리고 우쭐우쭐 춤을 추는데 머리로 어깨 이쪽저쪽을 번갈아 두드리서 박자를 맞춘다. 그럴 때에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아마 배가 울렁거리서 생기는 소린지도 몰라. 어쨌서 그런고 하니 타조는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치는 대로 집어 먹는 성미어서, 그 뱃속에는 자갈돌로 할 절반 차고, 그 밖에 못이나, 돈이나, 심지어 우리 조각까지 들어 있는 것이다. 자연 과학자 T.G.우드씨는 실제로 이것을 해부해서 발표한 유명한 분이다. “타조는 경솔할지 우습지는 성

### ★ 아 기 들 ★ (뒷 결장 그림 설명)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번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온갖 동물의 아기들을 소개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알트 되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고기, 새, 거북, 뱀, 또는 개구리 따위는 새끼를 알로 낳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것이나 비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것이나 비늘 대신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제 뱃속에 알을 간직하고,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한 날자 동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 새끼는 알 속에서 몇 주일 자라고, 병아리는 스무하루 동안 알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고양이 새끼는 어머니 뱃속에 무달 동안 있고, 사람은 아홉 달 동안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냅니다.

이미 세상 밖에 나왔더라도 아기들은 보살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다람쥐, 물범, 원숭이 따위 결장의 새끼는 나서 몇 주일 못되어서부터 저 혼자 돌아다닙니다. 또 저를 해치려는 적에 대해서도 곧 잘 제 몸을 보호할 줄 압니다. 송아지나 망아지, 혹은 양의 새끼는 나서 한 시간쯤 지나면 일어서서 걸어 다닙니다.

배가 우리 사람의 아기들은 풀이나 피어서야 견고, 먹이고 젖기는 때로 일일이 어른의 손을 빌어야 되지만, 비록 이렇게 느리게 몸 관수하는 법을 익혀 가면서도, 모든 결장을 수르르 어 세상에 제일 가는 동물인 것은 여러 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말치에는 새끼 귀족 사람의 웃 모양)

# 10월 10일 새 창 과학 공부

## 20마 상식



**고원(高原)...** 아세아구 가운데에 있는 **파라고원**은, **페루산**의 **2백**나 되는 것이 있거나 있고, **페루산**만 한 것은 몇 백 개가 있는지 모를만큼 많다.

**큰 수정(水晶)...** **남양 바다**가 **스갈도(島)**에서 발견한 것으로, 높이가 1.5 제터, 둘레가 6.6 제터나 된다.

**폭포...** **남미 부라질**과 **아프리카** 국경 사이에 떨어지는 **이그와즈** 폭포, 그 넓이(幅)가 2,945 메터나 된다.

**큰 부처님...** **베어마(인도동북쪽)**에 있다)의 **케에그**에 있는 것으로 높이가 50 메터이다.

**금강석...** **남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314만 3천 카와트가 나온다.

**높은 절...** **독일 우름**에 있는 **사원(寺院)**으로 높이가 161 메터이다.

**높은 담...** **불라파 파라**에 있는 **염밭담**으로 높이가 233 메터이다.

## 풍운기

풍운기(風雲記) 경주(慶州)에 있는 천성대(瞻星臺)를 아시지요? 고려(高麗) 시대에

모서운관(書雲觀), 또는 사천대(司天臺)라는 지구의 관찰대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조시대에는 고려시대에 하던 법을 그대로 물려서 서운관(나중에 관찰감(觀察監)으로 변)이 있어서 가장 주일(周曆)과 방정(方位)으로 매일 매일의 기상기후(氣象氣候)와 원번지(天變地異)를 조사하여 자세히 써왔는데,

이것을 한비 모아 만든 책을 풍운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풍운기를 쓰기 시작한 연수는 확실할 수가 없으나, 아무리 적게 따져도 세종 임금때부터 있어 온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운기의 면적(面積)은 남이 때문에 라파피고 지금은 최근 수세기(世紀)것만 남아 있을 뿐이나, 열조실록(列朝實錄), 경원일기

(政院日記)라는 책으로도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보면, 나라가 시작 된 이래의 기상(氣象)을 거의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년 여장의 최후기록(測候記錄)을 계속하여 간직하여 둔 것은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일로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할만한 것의 하나입니다.

## · 우리 학교 작품 ·



요구 창경원 드높은 스칼트 길도 깨끗한 전봇  
담을 끼고 돌아 곧장 아 길을 따라 한참 가노라

면 왼쪽으로 혜화동에 다  
달은다. 이 길을 조금가  
면 오른쪽으로 역사 길  
은 혜화학교가 나타난  
다. 지금부터 38년 전  
단기 4243년 1월 25일,  
숭의의숙(崇義義塾)이란  
이름으로 첫발을 내놓은  
이제 놀라운만치 발전하  
여, 단기 4271년 4월  
1일엔 이름도 새롭게

혜화 국민학교로 승격하  
여 이 혜화동으로 옮겨온  
후 지금에 이른 것이다.  
현재 심 원구 교장 선  
생님과 교감 천우 전 선  
생님, 그리고 41명의 선  
생님 밑에서 46 학급 3  
558명이란 많은 조선의  
봉오리들이 장래에 찬방  
히 꽃피어 국가를 건설  
할 꿈을 꾸며 정성으로  
배우고 있습니다.(기지)

## 제 5 회 서울 혜화 학교치

### ★나의 당부★

서울 혜화 국민 학교

심 원 구 교장

(1)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큰 좋은 행실의 근원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야 우리 민족은 단  
결하여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  
다. 남북을 통일하여 진정한 민주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직합시다 마음이 비두  
른 사람은 항상 근심과 불안 속이  
서 살며 마음이 바른 사람은 항  
상 즐겁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  
다. 우리 조상님들은 모두 정직  
하셨습니다. 미국 제일대 대통령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지극히 정  
직하였더랍니다.

(3) 씩씩합시다 씩씩한 사람  
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명장이 순천 장군 같은분  
이 정말 씩씩한 어른이십니다. 남  
을 해치는 행실은 용기가 아닙니  
다. 정말 씩씩한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약한 사람  
은 도와주고 울지 않은 행동을 공  
격 미워합니다.

### 동요 어린이 날

6의2 박 영 진



나라 없는 살천리 이강산에도  
그마운 햇님은 변함이 없어  
둥글둥글 지구를 휘휘 돌아서  
기다리고 기다릴 어린이날에  
따뜻한 봄빛을 보낼수있으.

산천의 초목은 겨울이건만  
독립이란 사람은 그대 속이었으  
아마도 무궁화를 기다리나봐.

우리들 어린이는 나라의 일군  
붉은 피의 탄 밤을뜨다 모아서  
목마른 무궁화에 보내주시요.

우리들은 독립을 맞이하여서  
세계의 등불과 어둠을 깨고

자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세계의 평화를 건설합시다.

### 작문 우리집 등나무

6의1 박 유 창

우리 집 앞 들에는 늙은 등나  
무가 서있다. 밑둥으로부터 굵은  
가지와 가지가 서로 들고 꼬여,  
관 가지가 또 관 가지를 치며 얽  
히고 뿔어 나아가서 넓은 땅장  
위를 덮고 그리고도 아직도 성해  
서 지붕 위에까지 뿔어 나아가  
있다. 개나리, 진달래, 할미, 영  
두꽃이 그운 자태를 감추고 나  
면, 이 등꽃이 5월 맑고 푸른  
하늘 밑에 피기 시작한다. 처음  
에는 연두색 꽃고추 모양으로,  
둥글고도 가늘하고, 같이 보옥과  
꽃 봉오리가, 하루하루 크키 서  
지하여, 내 손으로 두어번 꺾이  
가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  
너 내려 온다. 꽃이 만발하였을  
때에는, 주렁주렁 늘어질 줄줄이  
떨은 향기로 차고, 벌과 나비의  
날무는 봄 한 때의 황금강을 이  
룬다. 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등네 아

이것이 아름답고 크고, 때론 울  
 려고 설이로운 손님이 부지중에  
 미소를 띠우고 즐기는 양은, 모  
 주다 이 등나무의 혜택이다. 꽃  
 이 겨우 나뉘어 잎이 무지져서, 상  
 부 장대 국업을 가리워 주고 파  
 서서 부리지 않은 녹음 속에서  
 비어 소리를 한가히 즐기며 듣게  
 된다.

이런 맑은 개인 일요일 날 낮  
 에, 식구가 우연히 등나무 밑으  
 로 오게었다. 그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애 우장  
 아, 이 등나무를 심은지가 벌써  
 14 년이네, 나이로는 너와 동갑  
 이다. 저승에는 우리 식구도 만  
 들어고, 이 등나무도 아직 가늘  
 고 가려져 있고, 어떻게 무성하  
 지도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새  
 철이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는  
 오남매가 되어, 두 식구가 전화  
 까지 마른 식구가 되어, 매 식구  
 가 죽고, 밭에 있는 등나무는 무  
 선중에 자리서, 지금은 어 갈어  
 굵고 푸른한 노목이 되었다. 어  
 것 보아라. 이 등나무 가지는 손  
 으로 꺾으면 휘고 약한듯 하나,  
 절고 꺾이지도 않고 굽어지지도  
 않는다. 그러고 가지와 가지는  
 서로 힘히고 들고 의지하고 떨어  
 나간다. 사람도 이 등나무 가

# 우리 학교 교가★



그러운 옛 성리를 우려라 보면  
 반만년 결 역사가 따옴입니다  
 우리는 힘과 힘을 서로 합해서  
 조국을 지켜 가는 성어 되리라  
 해화 해화 해화  
 하늘과 땅과 나라의 은혜로  
 우리는 편안해 공부한다

서로들 통한 길을 바라다 보면  
 세계가 이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맘과 맘을 서로 합해서  
 평화를 열어 주는 갈어 되리라  
 해화 해화 해화  
 하늘과 땅과 나라의 은혜로  
 우리는 튼튼히 잘 자란다

1955. 5. (글 최 중 · 지음)

지와 갈어 꺾일듯 하면서도 속  
 으론 꺾이지 않는, 굳센 뜻매가  
 있어야 하고, 너희 형제도 서로  
 의지하고 단란히 볼들로 나아가  
 면, 감히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  
 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보

니 매일매일 무심히 바라보면 이  
 등나무가, 새롭스리에도 잘다워  
 저서 가까이 있던 가지 하나를  
 쓰다듬어 보았다. 그리고 두 손  
 으로 휘어잡아 쥐어 보았다. 부  
 연 떨림 하기는 하나, 꺾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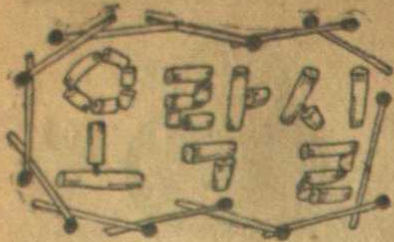
도 않고, 굽어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  
 를 바라 보니, 어머니  
 도 나를 바라 보시며  
 웃고 계시었다. 아  
 직껏 들린 구석에 말  
 이 서있던 등나무도,  
 오늘날은 갈어 웃으며  
 바라보는듯 싶었다.



# 세종대왕 훈민정음

도화 007 정 훈 근

습자 601 갈 래 용



## 맛있는 달걀 아이스크림 만들기

손쉽고 간단하게 우리 손으로 시원한 달걀 아이스크림을 땅장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게나 길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맛있고 아주 재미있으니 꼭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먼저 달걀 양쪽을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든 것을 입으로 들어 마시면, 흰자위만 빨려나오고 노란자위는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양편 작은 구멍을 손가락으로 꼭 막고서 달걀을 법다 흔들면, 그 속에 든 노란자위가 해

져 뽕글뽕글하게 뚱어다. 그러면 콘덴스·밀크나 설탕을 탄 우유를 가득 차지않게 구멍으로 붓고 또 다시 잘 흔들니다. 그런 다음에 양편 구멍을 종이로 막고 잘게 깨뜨린 얼음 속에 한 시간쯤 넣어 두면 아주 훌륭한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먹는 법은 어름에서 꺼내어 삶은 달걀 모양으로 껍질을 베껴서 숟갈로 떠 먹습니다. 기계 없이 손쉽고 맛있게 되는 이 아이스크림을, 여러 분들 한 번 실험해 보십시오.

## ★ 타지 않는 손수건 ★

손수건을 백반을 탄 물 속에다 좀 담갔다가 말리면, 그냥 손수건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 속에 던져도 또는 불 위에 덮어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모인 베회 한 번 실험해 보

면,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손수건 소술은, 진한 소금 물에다 손수건을 담갔다가는 오히려 담갔다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 귀롱이에 실을 붙들어 매어, 거기다가 작은 불이나 무슨 목직화 것을 넣어 불 위에 매달아 습니다, 땅장 손수건도 안타고 불도 그냥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아니 놀랄 사람은 없습니다. (손수건은 천 것을 쓰십시오.) 아주 신기하고 재미 있는 놀이입니다.



(문)척척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어 보세요.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글자가 무슨 글자요? 뭐 나무를 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볼 때면 물어봅쇼. (서울 종로구 탁 종철)

(답)그건 친할친(親)자. (척척박사)

(문)안녕하십니까? 매체 얼마나 용하시기에 그렇게 이름이 낫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못하실걸. 술술 스트록 술술이 무엇? (매체 매종교 8년 송기호)



(답)괴상하건 하지만 그것은 처음뿐. 자네 누님이나 어머니가



머리를 빗는게지 물론 빗으로, (척척박사)

(문)척척박사 할아버지 하모 잘 알아 맞추신다는 소문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 먹으면 훌쩍하고 안먹으면 똥똥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주 이인영)

(답)먹으면 훌쩍하고 안먹으면 똥똥한 것은 아기가 먹는 것일세 것이야. (척척박사)

(문)척척 할아버지 물론 그만 안녕 하셨겠지요. 이번에는 겨우

어렵습니다. 발은 여섯이고 눈은 셋 그머고 입은 둘이슬시다. 매관 걸 무엇일까요? (수원 을 우형)

(답)눈 하나 없는 사람이 발은 타고 가는군그며, 사람 발 둘 하고 말의 발 네이면 여섯, 애꾸는 하나하고 민의 눈 둘이면 셋, 사람 입하고 말의 입하고 둘 하하! (척척박사)

(문)밥은 남을 주고 저는 못먹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바로 알아 맞추시면 할아버지, 완강 때 한강 북쪽이 자려 드리지요. (서울 협성고 5년 양은식)

(답)그것은 주저. (척척박사)



# 장난감 만들기

## 누구든지 놀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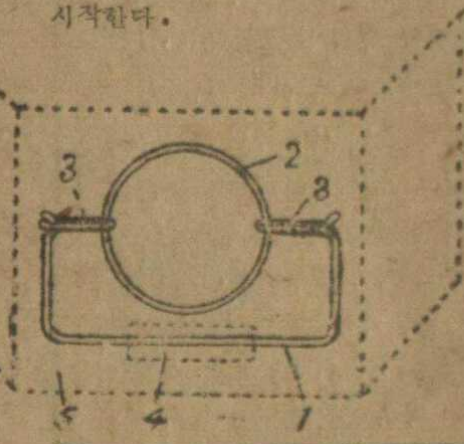
이 자라 장난감은, 선 종이를 여러가지 무엇이 펼쳐서 만들어지므로, 비행기를 발명한 리오 형제가 하늘을 나는 자라 장난감을 보고 크게 놀란 것과 같이, 이것을 동무들께 선사하면 모두 퍼 보고 놀랄 것입니다. 만드는 법도 꽤 간단하고 쉬움으로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 조금 굵은 철사와 동그란 고무줄을 두 개, 그리고 두께 좋고 끈끈한 종이, 매개 도화지 두께의 것이면 좋다.

만드는 법... 먼저 철사 ①을 앞뒤로 자르고, 그 양쪽을 갈퀴 모양 구부러뜨리고, 여기다 고무줄을 끼는 곳을 만든다. 그리고 다른 철사로 동그라미 ②를 만들고, 이 동그라미하고 먼저 갈퀴 모양 구부러진 철사의 외 쪽에다 고무줄 ③을 건다. ①을 종이쪽 ④로 도화지의 한 가운데다가 싸는 것인데, 이 싸는 법은 그림을 잘 보고 들여다볼게 할 것. 이 도화지를 세 번이나 여러 번 접어서 열리지 않게 하면 된다.

노는 법... ①을 한쪽 손으로 잡고서, 동그라미 ②를 빙글빙글

몇 번이든 돌린다. 고무줄 ③을 많이 비비 꼬아야 한다. 그리고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을만큼 꼬아지면, 동그라미가 반대쪽으로 돌지 않게 누르면서 종이에다 잘 썬다. 이것을 아무렇게도 얹은듯이 동무들께 선사를 하면,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하고 종이를 찢자마자 깜짝 놀라 달아나고, 이 장난감은 맹렬한 기세로 돌기 시작한다.



## 의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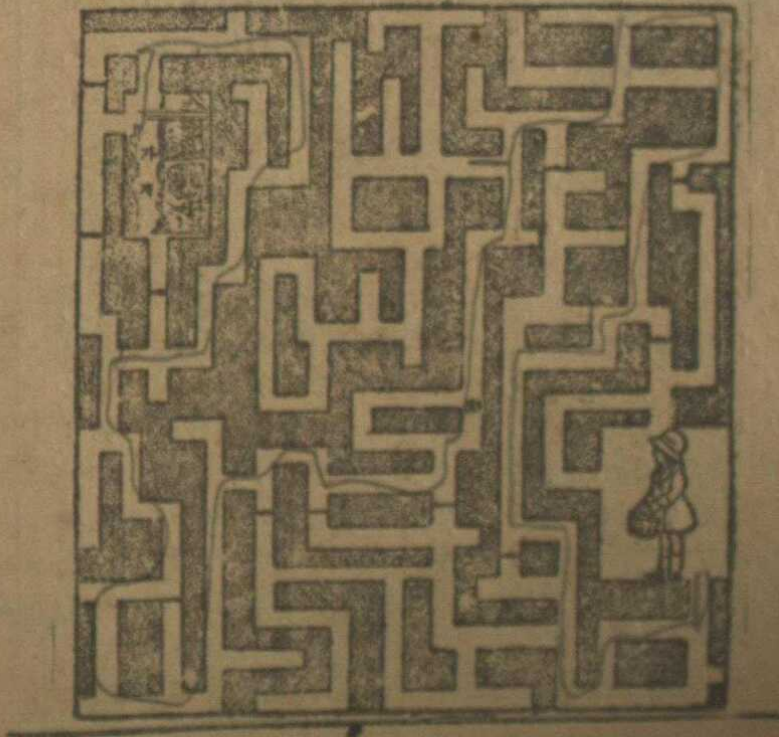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아주 전한 두 동무, 항상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는 한곳에 머물러 있고 다른 하나는 방선과 같이 어떠한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하나를 잃어 버려서는 안됩니다. 왜 그리냐 하면 한곳에 머물러 있는 다른 하나가 방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당신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당신의 돈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알아 내시면 참 용하시지요. (정 모로시엔 36 페이지를 보십시오)

## ☆ 길 찾기 내기 ☆

여러 분! 여기 재미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꽃분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떤 길을 가야 하게 할

수 있었을까? 같이 쳐 있는 때는 전느지 못합니다. 저 수가 수가 먼저 찾나 동지공기 동무처럼 모여서 찾아 보십시오.



# 소학생 구락부



▲아침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신문 광고에서 작품 모집을 보고, 개인적으로 동요 "봄맞이"를 지어서 보였습니다. 여러 기자 선생님들이 우리들 어린이를 위하여, 조선의 새 일꾼인 우리들을 좀더 씩씩하게 길러 주시려는 그 감사한 마음에 못이겨, 불것 없는 동요나마 지은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 점을 많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경남 밀양 밀성 국민교 5의3 이부자)

▲"소학생"을 길러 주시는 여러 선생님 모두 안녕히 봄맞이 하셨습니다까? 저는 "소학생"을 다 읽어 보아도 실증이 안 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저도 "새 번째 작품과 동요 모집"에 원문 끼어 여러 선생님을 도우려 합니다. 그럴 때는 동요를 보내나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서울 북상 국민교 5의1 박승원)

▲기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씩씩한 조선의 새 일꾼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신문 광고에 아침에서 동요와 작품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짜주는 없으나 정성으로 작품을 하나 지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경남 밀양 밀성 국민교 5의1 이부자)

▲여러 분의 격려와 열성으로 많은 작품이 작차에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께서 어떤

것이 제일 훌륭한가 잡으시노라고 칭찬 바쁘십니다. 이 다음에도, 모집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작품을 보내 주십시오. (기자)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는 몇일째 읽고 지금은 며칠 못 봐 있으니,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피뢰침(避雷針)은 누가 발명하였는지요? 저는 과학공부가 재미 있습니다. "소학생"은 사머 가면 같이 오르면 즉독한 값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 후로 우리들을 위하여 많이 힘써 주시고 또다시 인사 올릴 때까지 안녕히 재십시오. (서울 중로 5가 2기덕)

△과학이란 우리 조선에겐 가장 필요하고 하루라도 더 속히 배우고 연구할 것이 하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피뢰침은 미국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하였고, 몇일과 며칠은 며칠이 맞습니다. "소학생"은 종이 값 때문에 오르는 것이니, 앞으로 종이 값이 떨어지면 "소학생" 값도 떨어질 것인데, 지금은 90 원입니다. (기자)

▲세물을 맞이하여 첫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맘을 들여서는 선생님들께 무어라고 감사사를 드려야 좋은지..... 이런에 편편치 못한 저지 박사, 간결박사를 보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서울 무학로 4의 1 김영훈)

## 만고 나서

소학생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학생"을 만들고 있다. "더욱 더 충실하게 만들자." "이번이야 재미 있었지." 그러나 정작 재미 있어 나와 보면, 어떤지 부족한 것만 같아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제대로 된 것을 자랑한다. 마음껏 부리는 정열 재미 있고 좋은 책이 나올 것을 믿고 여러 분의 협력을 바란다. 습언재 소설 "소년 왕국지"의 "봄의 노래"는 마음 치가 자꾸 거다려질까. 이번이 부러워도 실는, 흥이 실 선생님 "소년 과학사"는 다른 책은 모처럼 볼 수 없는 단이니, 누구나 꼭 읽으셔야. 부6월의 화술은 많다. 피뢰침 출판을 앞둔 8학년 여러 분 며칠 남지 않은 소학 시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김 은정)

1947년 4월 15일 발행

소학생 · 값 90 원

6월치 ★ 제 58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所 兪 協

1947년 3월 31일 발행 100부

418 885 216 205027

電話 [31] 3379 4-338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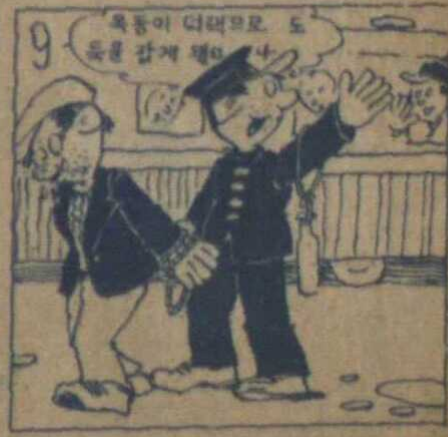
總發賣 乙酉 文化社

賣店 \* 文章閣 \* 鍾路 2 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년 3월 31일 발행 3,149부

★ 新報 發賣 100-號 ★ 新報 日字 1946年 7月 9日 ★ 新報 發賣 100-號 日字 1946年 4月 22日 ★



# 學生朝鮮語辭典

李永哲 編纂  
李熙昇 監修

뜻밖에도 가지는 것은 알뜰 것도 없지마는 국어 공부에 열심인 여러 학생들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 무한 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만일 아직도 알지못한 분은 지금 곧 주문하시어 언제든 정액 받고 쓰시도록 하십시오. 약아도 약아도 모자라던 책이 이젠 여섯 번째 증쇄판이 나왔습니다. 각 책사에서 파는 데 팔리지 않거든 본사로 직접 주문하십시오.

乙酉文化社發行

서울 總路 永保빌딩 • 振興 京城 32533番

값 250원



곰



도야하

나무다리



북아프리카 아기



아프리카



조선 아기



물범(海豹)



중국 아기



칼가루



물뽕뽕이(河馬)



말



원숭이



기린



곰(熊)



타조



양



토끼



거북